



기독교사회복지  
Christian Social Welfare Expo 2010  
EXPO 2010

Christian Social Welfare  
EXPO 2010

섬김과 나눔의 행복축제

[www.c-expo.org](http://www.c-expo.org)

# 기독교사회복지엑스포2010 Christian Social Welfare Expo 2010

사회복지영역별 세미나

## Section VIII\_ 노숙인분과 세미나

- | 일시 | 2010년 10월 15일 금요일  
오전 10:00 ~ 오후 1:00
- | 장소 | 여의도순복음교회 다윗성전

| 기독교사회복지엑스포 2010 조직위원회 |

Christian Social Welfare  
**EXPO 2010**

섬김과 나눔의 행복축제

[www.c-expo.org](http://www.c-expo.org)

# 기독교사회복지EXPO 2010

Christian Social Welfare  
**EXPO 2010**

사회복지영역별 세미나

## 노숙인분과

## 인/사/말



김 삼 환 목사

(기독교사회복지엑스포2010 대회장, 명성교회 당회장)

한국교회는 그동안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누리며 놀라운 성장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는 교만하지 않았는지, 마치 한국 교회의 성취가 우리의 손으로 이루어 낸 성과인양 자만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다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그 은혜 앞에서 겸손하게 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풍성하게 받은 축복과 은혜를 베풀고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우리 자신을 위한 소비는 줄이고 어렵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나눔은 더 크게 늘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고 이 세상 사람들의 진정한 희망이 되기 위하여 교회는 무엇을 하여야 할 것인가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섬겨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이며 우리에게 이 시대에 주시는 사명입니다. 우리가 이 사명에 충실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금 부흥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우리 민족을 우리 가슴에 품고 그 아픔을 끌어안으며 함께 울고 함께 웃을 때 이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참된 생명이 있고 교회가 이 세상의 희망과 구원의 방주임을 다시 깨닫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사회복지엑스포2010은 한국교회가 주님의 나눔과 섬김의 정신을 실현할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다양한 행사와 자료를 제공하고 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참여하는 모든 분들의 사랑과 수고와 눈물이 아름답게 열매 맺기를 바라오며, 모든 과정에 성령의 지혜와 능력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 환/영/사



이 영 훈 목사

(기독교사회복지엑스포2010 조직위원장, 여의도순복음교회 당회장)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한국의 역사속에서 지난 125여년 한국교회는 ‘가난하고 소외된 자’를 돌보는 일에 앞장 서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기초하여 한국교회가 실천해 온 다양한 섬김의 모습은 한국사회발전에 크게 기여하였고, 많은 영적 지도자를 배출하여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개최되는 “기독교사회복지엑스포2010”은 현재 한국 사회를 섬기고 있는 모든 교회와 기독교 사회복지단체가 한 곳에 모여 지금까지 실천해 온 그 귀한 사역을 한국교회가 사회 앞에 알리는 축제의 장이 될 것입니다.

이번 엑스포가 소외되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섬김의 사역을 다하고 있는 교회와 단체에는 따뜻한 격려를, 새로운 복지사역의 비전을 품고 나아가는 교회와 단체에는 힘찬 용기를, 그리고 우리 사회에는 그리스도인의 착한 행실을 알려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계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무쪼록 이 엑스포를 통해 한국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복지사역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갖게 됨으로 기도와 참여, 후원에 최선을 다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목 / 차

기조강연   .....	9
“노숙인의 치유와 회복” _ 이만식 교수(장로회신학대학교, 사회복지 전공)	
발 표 1   .....	18
“노숙인 인문학 강좌” _ 여 재 훈 신부(성공회 다시서기지원센터 소장)	
발 표 2   .....	30
“노숙인 응급보호 서비스” _ 최 구 영 목사(손명식 센터장(구세군브릿지상담보호센터))	
발 표 23   .....	41
“노숙인들의 치유와 회복” _ 오 범 석 국장(전국홈리스연대 정책국)	
종합토론	

# 기독교사회복지EXPO 2010

## 사회복지영역별 세미나

### - 노숙인분과 -

1. 일 시 : 2010. 10. 15(금) 오전 10:00 ~ 오후 1:00
2. 장 소 : 여의도순복음교회 다윗성전
3. 등 록 비 : 무료
4. 행사안내 :
  - 1) 전화 및 팩스(Tel. 02-747-1225 학술팀 / Fax. 02-764-1225)
  - 2) E-mail([expo2010\\_head@hotmail.com](mailto:expo2010_head@hotmail.com))

#### 5. 행사일정

시 간	순 서	내 용
09:45 ~10:00	경배와 찬양	여의도순복음교회 청년국 찬양팀
10:00 ~10:30	개회예배	인도_ 안기성 목사(거리의 천사) 기도_ 정태효 목사(성수삼일교회-내일의집) 설교_ 김원일 목사(서울역선교연합회) 축도_ 설교자
좌장 : 안기성 목사(거리의 천사)		
10:30 ~11:00	기조강연	“노숙인들의 치유와 회복” _ 이만식 교수(장신대학교)
11:00 ~11:30	발표1	“노숙인 인문학강좌” _ 여재훈 소장(성공회 다시서기)
11:30 ~12:00	발표2	“노숙인의 응급보호 서비스” _ 손명식 관장(서울노숙인 복지시설협회장, 구세군 브릿지센터)
12:00 ~12:30	발표3	“노숙인 주거” _ 오범석 사무국장(나눔과 미래)
12:30 ~13:00	종합토론	

Christian Social Welfare  
**EXPO 2010**

섬김과 나눔의 행복축제

[www.c-expo.org](http://www.c-expo.org)

# 노숙인의 치유와 회복

장로회신학대학교 교수, 사회복지 전공 이 만 식

## 1. 성경에 나타난 노숙인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희망하면서도 현실의 삶 가운데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종종 있다. 그래도 막연하게 ‘예수님의 성품을 닮자’고 하던지 ‘서로 사랑합시다.’와 같은 포괄적인 내용을 언급할 때에는 그나마 낫지만,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콕 집어서 우리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허점을 지적할 때에는 뜨끔할 때가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노숙인의 경우이다.

성경에 무슨 노숙인이 등장하냐고 반문할 수 있지만, 우리는 누가복음 16:19 이하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 얘기를 통해 부자와 노숙인(나사로)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을 잘 알 수 있다. 우선 그 예화의 제목만 보더라도 보통 사람들과는 너무 다른 예수님의 마음을 잘 알 수 있다. 예수님께서서는 부자에 대해선 그 이름도 언급하지 않을 만큼 관심을 두지 않으셨지만, 그 부자 집 대문 앞에 버려진 거지에 대해선 친히 ‘나사로’라는 이름을 기억하셔서 복음서 가운데 적어두신 것이다.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에서 우리들 세상의 기준과 다르신 것이다. 이미 풍요로운 자에 대해선 그 복을 이미 받은 것으로 생각하시고, 아직 풍요롭지 못한 자 즉 가난한 자에 대해선 그 이름을 기억하시며 나중에 큰 축복이 있을 것을 약속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25절에서 아브라함이 음부에 들어간 부자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다. “애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적어도 성경을 통해서 나타난 이름이 기억되지 않은 부자와 그 이름과 축복을 화려하게 기록한 거지 나사로는 대한 차이는, 현실에서 삶의 빈부의 차이에 불과한 것이다. 부자는 땅에서의 삶이 부요했기 때문에 그 너머 세계에서는 고통을 감수해야만 하고, 나사로는 고난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나중에 천국에서 위로를 받는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를 통해서 아니 노숙인 나사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시는 내용은 사실은 노숙인에 대한 우리의 태도나 그들을 바라보는 시선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결국 우리 자신의 현실의 삶을 노숙인을 통해서 엄격하게 돌아보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우리가 노숙인을 하나의 객체로 보고 그들을 돌보고 사랑해야 할 대상으로 그냥 생각해버린다면, 그건 나사로에게 남겨진 음식을 던져준 이름 없는 부자와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주님께서서는 우리 각자의 시선으로 나사로를 바라보지 말고, 나사로의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가난한 노숙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자각하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나사로의 시선을 가지고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살아가면서 주님이 아닌 자신이 가진 재물이나 개인적인 영예에 의존하지 않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이다.

우리는 나사로의 눈높이에서 노숙인을 섬겨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 예수님께서 영혼의 노숙자인 우리를 위해,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을 체험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 2. 노숙인 통계와 현재 상황

### 1) 노숙인 통계의 비밀

2008년 보건복지부 백서에 따르면 IMF 이후 1999년 6천 2백 명 수준이던 노숙인 수는 2004년 4천 4백여 명 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07년 12월 현재 4천 5백여 명으로 다시 증가하고 있다. 2005년 국정조사에서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거리에서 떠도는 노숙인의 경우 2002년 670명에서 2005년 7월말 현재 1,276명으로 증가하여 3년 만에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쉼터에 수용된 노숙자는 2005년 말 현재 3,146명으로 전년도 대비 10% 감소세를 보였고, 2002년과 비교해서는 600명 이상 줄어든 것으로 보고되었다. 결론적으로 2000년대 중반 이후 우리나라 노숙인수는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그 구성에서 보면 거리의 노숙자들은 급격한 증가세를, 쉼터에 입소해있는 노숙인들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반되는 현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현상의 원인은 노숙자를 위한 시설에 고령자가 입소하는 경우가 많은데다 쉼터 내 자체적 건강증진 프로그램의 부족으로 사망으로 인한 퇴소자의 수가 매년 증가하는데도 일부 원인이 있으나,<sup>1)</sup> 거리의 노숙자들이 쉼터를 기피하는 경향이 증가하는 사실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하겠다.

이러한 노숙자의 수를 산출하는 정부통계의 집계방식은 전술한 바와 같이 거리 노숙인과 시설 입소자를 합산하여 추정하는 협의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어 그 신뢰도에 있어서 의문점이 제기되고 있다. 예를 들어 민간단체들의 경우 정부와 달리 노숙인의 개념을 넓게 하여 거리 노숙인과 쉼터입소자 외에 불안정한 주거로 인해 노숙의 위기에 처한 잠재적인 노숙인<sup>2)</sup> 까지 포함시켜 7만여 명이 이룬다는 주장까지도 있다.<sup>3)</sup>

## 2) 노숙자 분포 및 건강상태

노숙인의 분포는 서울 64.5%, 부산 11.0%, 경기 7.8% 등 대도시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노숙인의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남성이 97%, 여성이 3%이며, 30대와 40대가 다수를 이루고 있다. 또한 거리 노숙인들의 평균 노숙기간은 28개월로서, 2년 4개월 이상 노숙생활을 한 만성적 노숙인 집단이 40%에 이르고 있다. 한편 종교기관, 사회복지관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숙인 쉼터는 2003년도 114개소에서 2007년 말 현재 79개소로 감소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sup>4)</sup>

2005년 9월 보건복지부의 노숙자 종합대책 수립 시 조사내용에 따르면 2005년 9월말 현재 3천4백4십1명의 쉼터 입소 노숙자 중 59.1%인 2천 33명이 양호한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11.6%인 399명은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7.9%인 271명이 알코올중독, 5.3%가 신체장애, 5.2%가 정신질환, 0.5인 323명이 정신지체를 앓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1) 2005년 보건복지부의 부랑인 수용 복지시설 퇴소자 현황보고에 따르면 사망하는 경우가 2003년 79명이던 것이, 2004년 85명으로 늘어났고, 2005년 상반기에만 100명으로 보고되는 등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잠재적 노숙인은 아직 주거를 상실하지는 않았으나 강제퇴거의 위험에 몰린 집단, 가족 및 사회적 지지가 해체되어 비닐하우스, 쪽방 등의 무허가 거주지에 거주하거나, 여인숙고시원만화방 등 임시거주지에 거주하고 있는 집단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3) 보건복지부(2001), 노숙자 자활사업 최종보고서.

4) 보건복지백서(2008), p358.

### 3. 노숙자 지원 사업의 실태와 과제

#### 1) 현행법 상 노숙인 규정과 실태

현재까지 독립된 노숙인 관련법<sup>5)</sup>은 없으며, 2005년 1월 보건복지부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서 사회복지사업 대상자로 부랑인과 함께 삽입한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 설치운영규칙’이 개정, 시행함으로써, 노숙인 쉼터, 상담보호센터 등의 설치기준 및 인력기준, 입소절차 등이 신설되었다. 하지만, 사회복지사업법에 노숙인을 부랑인과 함께 그 것도 불과 5년 전에 삽입했다는 사실은 노숙인 문제에 대해 장기적이고 통합적인 접근책을 모색했다기보다는 다분히 정치적 의미의 단편적 처방이었다는 분명한 한계가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노숙인을 부랑자와 동일시함으로써 발생하는 노숙인에 대한 부정적 시각의 사회적 확산은 차치하더라도 현행법은 노숙인 사업주체가 불명확한 상태이다. 즉 2005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지방특별분권법’에 의해 노숙인 사업이 전면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소관업무로 이양됨으로써 노숙인 사업은 지방정부의 분권교부세와 지방세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사실상 중앙정부는 부랑인 사업만을 전담하고 노숙인 사업에서의 직접적인 책임을 지방정부로 이관한 상태이다. 이로 인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길거리를 배회하는 사람이 부랑인이나 아니면 노숙인이나를 놓고 보이지 않는 다툼까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sup>6)</sup> 또한 현실적으로 서울 등 재정자립도가 높은 극히 소수의 도시에만 노숙인사업 예산에 존재하기 때문에 노숙인들은 생존을 이유로 서울로 집중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 2) 노숙인 지원/보호 대책

정부는 2006년 6월 노숙자보호 종합대책으로 주거대책, 급식대책, 의료대책, 자활대책, 여성노숙자대책의 5개 영역에서 개별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진행하고 있다.

5)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는 2010.9.20일 당과 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인 노숙인 지원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숙인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실질적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뉴스웨이)

6) 문화일보 2007년 9월 5일자

### (1) 주거대책

주요 주거대책으로 보건복지부는 2006년 101개 쉼터(정원 4,245명)에서 숙박과 함께 급식, 의료구호 등을 제공하고, 단기 보호센터 확장 및 신규 임시보호소 개소로 서울역 주변 거리노숙자 등에 대한 응급 잠자리 제공 등 공간 부족을 해소한다는 대책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노숙인에 대한 주거 대책은 시설 수용 위주의 임시방편적 대책으로써 실질적인 주거대책이라 할 수 없다. 노숙인에게 기숙사형 시설이 아닌 주거를 제공하는 대책으로 ‘자활의 집’ 프로그램이 있지만, 이른바 ‘자립가능성이 높은 노숙인’에게만 매우 제한적으로 제공된다. 2004년 발간된 인권백서에 의하면 주거비를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이들에게 마지막으로 제공되는 것은 노숙인 쉼터뿐이고, 그 이상의 안정적인 주거대책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 (2) 급식대책

쉼터 입소자의 경우 조식과 석식을 제공하며, 거리 노숙자 등을 대상으로 종교, 시민단체에서 순번을 정해 서울역 지하도, 을지로입구 지하철역 등에서 실외 급식을 제공하는 것이 현재 정부의 노숙인에 대한 급식대책이다.

### (3) 의료대책

쉼터 노숙자의 경우 건강진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데, 그 예산은 쉼터 운영비 일부를 의료구호비 예산으로 외래 및 입원진료를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주민등록 말소자 및 확인불능자의 경우도 1개월 이상 쉼터 거주 시 의료급여의 자격을 부여한다. 또한, 거리 노숙자에 대한 진료도 실시하는데, 서울 등 대도시에 설치된 무료진료소에서 1차 현장진료를 실시한다. 입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아 시, 도립 병원, 적십자병원 등에 입원, 진료 조치하도록 되어있다.

### (4) 자활대책

보건복지부 자료<sup>7)</sup>에 따르면 2005년 11월말 현재 쉼터 노숙자 3천5백9십4명 중 근로활동 참여자는 1천2백7십 명으로 전체의 3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활동 불참자 65%

7) 보건복지부(2006), 노숙자보호 종합대책 자료

중 근로 곤란자는 2.6%에 불과하며, 비 근로자의 많은 수가 근로활동에 대한 긍정적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실제적으로 이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많이 부족한 상태이다. 그나마 알콜재활, 심리재활 등 직업재활 관련 재활사업이 적은 예산으로 함께 시행되고 있다.

### (5) 여성노숙자 대책

여성노숙자는 2005년 9월 말 현재 총 3백2십3명으로 보고되었고, 문제가 되는 거리 여성노숙자는 45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으나, 그 수는 매우 유동적이라 할 수 있다.<sup>8)</sup> 2006년 말 현재 전국 11개소의 여성/가족 노숙자 쉼터에서 개별 여성 혹은 가족단위의 노숙자 보호가 실시되고 있다. 소수인 여성 노숙인의 경우 다수를 차지하는 노숙 남성들에 의한 성폭력의 위협에 상시 노출되어 있고, 생계형 성매매의 유혹도 적지 않아 또 다른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 3) 현행 정부 노숙인 대책의 한계

현행 노숙인 사업은 사회복지사업법에 흡수되어 시설중심의 보호가 주로 되어 있다. 하지만 일시적인 주거로서 쉼터의 시설 수준은 매우 열악하고, 사업내용도 단순 주거, 급식, 일차적 의료 등에 제한된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또한 노숙인들의 사회정착을 위한 지속적, 안정적 주거확보대책과 노숙위기에 처한 위험군에 대한 예방대책은 전무하며, 노숙인들의 자활을 위한 직업관련 재활, 훈련, 고용 대책의 확보는 명목상에 불과한 실정이다.

## 4. 노숙인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제언

### 1) 노숙의 원인에 대한 바른 인식

우리 사회의 주택은 주거 목적이 아닌 재산증신 수단으로 왜곡되어 있다.<sup>9)</sup> 심화되는

8) 보건복지부(2006), 노숙자보호 종합대책 자료

양극화 속에서 노숙인의 문제는 결국 사회구조적인 문제일 수밖에 없다. 사회안전망의 붕괴와 양극화에 기인한 경쟁 낙오자의 양산이라는 신자유주의적 사회체제가 노숙인 발생의 구조적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게다가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노숙인지원체계가 여전히 응급구호적인 성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은 안타까운 일이다. 노숙인 문제가 단기간에 해결될 것이라는 전제하에 다분히 응급구호적이고, 일시적인 현재의 처방으로는 오히려 노숙인 문제를 고착시키고, 만성화 시키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노숙인 문제의 진정한 대책이 그들을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자립으로 이끄는 데 있다면 사회를 위해 기여하는 것도 없는 존재들을 위해 국가가 이만큼이라도 배려하는 것만도 감지덕지해야 한다는 식의 고압적인 사고방식으로 근본적 문제해결이 불가능할 것이다.

서울역 앞의 노숙자들이 우리사회의 성장을 방해하고, 주변 환경을 더럽히며, 우리 가족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량자가 아니라, 그 고통이 나에게도 닥칠 수 있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들의 고통은 소위 세계화 과정에서 양산된 실업과 사회안전망의 붕괴로 인한 빈곤의 가속화, 시장원리에만 맡겨진 주택 공급시장 등 사회적, 정치적 환경이 원인이고, 평범한 우리들은 이런 현실을 극복할 아무런 대안도 갖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우리 사회는 노숙인에 대한 기본적인 관점을 전환하고, 노숙인의 자활과 노숙발생경로를 예방, 차단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법제도의 정비와 후속 서비스와 프로그램의 개발과 실행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 2) 사회복지의 가치에 기초한 서비스 제공

사회복지의 6대 가치(The NASW Codes of Ethics, 1999) 중에서 노숙인에게 적절한 4가지 가치를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1) **적절한 자원과 서비스 제공 (Services)**: 클라이언트에게 최대한의 원조 (help) 와 자원 (resource) 그리고 급여 (benefit)를 제공해야 한다.

(2) **사회적 정의 (social justice)**: 개인의 배경과 소속집단에 관계없이 모든 개인의 그 사회의 일원으로서 동등한 권리, 보호, 기회, 의무, 그리고 사회적 급여가 보장되도록

9) 이수현, 『우리 옆의 약자』 (서울: 산지니), 2006, 177쪽

해야 한다.

(3) **개인의 가치와 존엄성 (Dignity and worth of the person)**: 클라이언트의 인간적 존엄성을 높이고 개인의 가치를 존중해야 한다.

(4) **인적관계의 중요성 (Importance of human relationships)**: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간의 전문적 원조과정을 원활히 하기위해 상호간의 정서적 교환, 역동적 교류, 그리고, 감정적, 인지적, 행동적 결합관계를 성립과 존중이 요구된다.

### 3) 강점관점으로 노숙인을 바라보기

노숙인들의 강점(강점관점, strength perspective)을 적극적으로 찾아내서 그들의 역량강화(empowerment)에 힘쓰는 일이 필요하다. ‘임파워먼트(empowerment)’란 구성원들이 지닌 잠재력을 인정하고 그들이 지닌 재능과 잠재력을 마음껏 발휘하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클라이언트 개인이 경험하는 심리적 차원에서 보면, 임파워먼트는 클라이언트로 하여금 파위를 실제로 느끼도록 함으로서 내적인 동기부여를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

한국교회가 교회의 성도들만을 생각하는 배타적 이기주의로는 노숙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H. Snyder의 주장대로 기독교인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면, 노숙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 필요하다.

헨리 나우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IN the Name of Jesus)라는 책에서 자신의 오르막길 인생에서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다고 고백하고 있다. 그는 낮은 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다.

교회의 섬김은 구체적이어야 하고,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에서라도 달성되어야 한다. 섬김은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성육신 하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헌신이어야 하는 것이다.

### 4) 나그네와 동질감 가지기

국부론으로 유명한 아담 스미스는 당대의 사람들이 바람직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식했던 것은 인간의 이타심 또는 박애심(benevolence) 때문이 아니라 동감

(sympathy)의 원리 때문에 자유질서가 가능하다고 『도덕감정론』에서 주장했다. 동감이란 입장을 바꾸어 놓고 생각하는 것(imaging change of situation)이라는 것이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비참한 처지를 보면 가슴이 아픈 이유는 “저 사람이 나라면...”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입장을 바꾸어놓고 생각하기 때문이며, 이것이 인간의 특징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서 인간 사회가 타율적인 질서가 없어도 과도한 질서파괴 행위가 자제되며 질서를 가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sup>10)</sup>

구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신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출 22:21; 23:9; 신 10:19, 대상 29:15). 오늘의 노숙인을 나그네로 빗대어 이야기한다면 너무 지나친 유비일까? 필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내가 노숙인이다’라는 생각은 우리 사회를 하나로 묶는 강력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오늘 노숙인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며 광야에서 노숙할 때 함께 하신 하나님, 부자의 집 밖에서 고통 받던 나사로와 함께 하신 예수님, 모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성령님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신앙이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도 가득하길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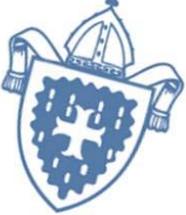
---

10) 김승욱, 『기독교 경제학의 가능성 및 유형』 교회와 신학 (2008 봄호), 18쪽에서 재인용

# 노숙인 인문학 강좌

성공회 다시서기지원센터 소장 여재훈 신부

노숙인을 위한 인문교양강좌(클레멘테 코스)



## 성 프란시스대학 인문학과과정

St. Francis Humanities Course

대한성공회 다시서기지원센터 소장  
여재훈(루가) 신부



## I. 노숙인과 성 프란시스대학 인문학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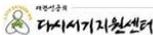
- IMF 경제위기 이후 많은 실직노숙인이 양산되면서 노숙인 지원에 대한 실제적인 사회적 대책 논의

- 98년도 노숙인다시서기지원센터의 개소와 더불어 120여개소의 노숙인 컴퓨터 설치를 시작으로 노숙인 지원사업이 전개

- 이후 노숙인 지원의 골자는 의, 식, 주의 지원을 중심으로 지원하고, 이를 토대로 한 자활유도

→ 노숙인의 사회성 회복, 지역사회 유입을 위한 정상화(normalization)를 위한 실질적 프로그램의 부재 문제의 제기

◇ 2005년 노숙인다시서기지원센터의 특화 지원사업으로 미국 얼쇼리스의 클레멘테 코스를 표방한 '성프란시스대학 인문학과정 1기' 기획 및 운영 (당시 소장 임영인(시몬)신부)



### \* 얼 쇼리스의 클레멘테 코스



**얼 쇼리스(Earl Shorris) : 클레멘테 코스의 창시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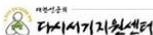
- 소외계층을 위한 정규대학수준의 인문학 교육과정인 '클레멘테' 코스의 창시자

- 시카고대학교 출, 언론인, 소설가, 대학강사로 활동

#### 클레멘테 코스(Clemente Course)란?

**'가난한 사람들의 황폐해진 정신을 추스를 수 있는 게 과연 뭘까?'**

그런 물음에서 출발해 얼 쇼리스가 내린 결론이 바로 '인문학 교육을 통해 자존감을 회복시키는 것'이었던 것이었다. 그런 그의 신념에 의해 탄생한 게 바로 '클레멘테 코스'로 일주일에 두 번씩 예술사, 역사, 논리학, 철학, 문학 등 5과목을 배우는 '가난한 자를 위한 인문학'과정이다.



## II. 성 프란시스대학 인문학 과정의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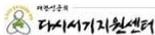
### ● 목적

- 인문교양과정을 통한 지속적인 자아 내면적 성찰
- 개인의 개별문제, 사회 구조적 문제에 대하여 스스로 대안을 찾아나아갈 수 있도록 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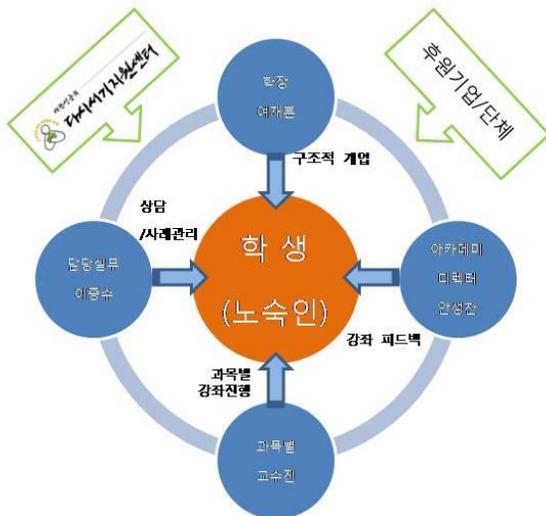
➔ 건강한 시민사회의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는 내면적 힘을 배양

### ● 과정

- 총 1년 과정, 2학기제 운영
- 코스당 학생 수 : 25명
- 개설과목 : 철학, 글쓰기, 한국사, 예술사, 문학 등
- 인문학 현장학습, 동아리 지원, M.T. 졸업여행 등 공동체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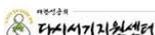
## III. 성 프란시스대학 인문학 과정의 Process



- 성 프란시스대학 인문학 과정의 학장, 담당활동가, 아카데미 디렉터, 각 과목 교수진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한 학생의 변화 유도

- 공동체적 인문학 교육활동을 지향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 활동의 모색 (분기별 운영위원회 개최)

- 삼성코닝정밀소재, 한국연구재단 등 파트너십 체결을 통한 프로그램 안정성의 향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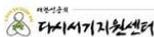
## IV. 성 프란시스대학 인문학 과정의 운영과정

### ● 연간 운영과정

#### 1) 정규과정

구 분	과 목	교 수 진
입학식(2010. 2.)	입학식(성공회 대성당)	
1학기 (2010. 2 ~ 7)	철학	박남희 교수
	예술사	김동훈 교수
	글쓰기	박경장 교수
여름방학(2010.7-8)	여름 MT, 동아리활동 등 공동체 활동 지속	
2학기 (2010. 8 ~ 12)	문학	안성찬 교수
	한국사	박한용 교수
	글쓰기	박경장 교수
수료식(2010. 2)	수료식(성공회대학교)	

인문학교육과정으로서 입학식, 정규과정(1,2학기) 방학, 수료식의 구조화된 교육과정의 채택을 통해 **참여자의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참여방식의 유도**



## IV. 성 프란시스대학 인문학 과정의 운영과정

#### 2) 현장학습, 공동체 활동의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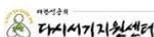
##### (1) 동아리 활동 지원

- 사물놀이, 독서토론 등 학생의 자율적 동아리 구성을 통한 활동 지원

##### (2) 인문학 현장학습 활성화

- 박물관 견학, 생태체험, 연극관람 등의 문화체험 등을 통한 살아있는 인문학교육의 실현
- 과목 담당교수의 현장학습 동행 및 지속적 멘토링으로 생동감 넘치는 현장교육의 진행

주입식 인문학교육이 아닌 **상호 소통을 중심으로 하는 살아있는 인문학 교육과 현장체험, 공동체 활동**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높이고 사회성을 고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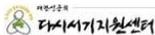
## IV. 성 프란시스대학 인문학 과정의 운영과정

### 3) 심화과정

- 보다 심층적 인문학 학습을 위해 전문학습기관과의 적극적인 연계를 통한 인문학 심화과정의 운영 : **서울대학교 HK인문학연구소 연계**
- 서울대 내 강의실에서의 진행을 통한 학습참여자의 학습자존감의 형성 및 인문소양의 고취 유도

### 4) 방학 중 특강 진행

- 시민단체, 학계, 시인 등 사회 저명인사를 초청하여 **사회현상에 대한 고찰, 문화, 사회운동 등 다양한 특별강의의 진행으로 살아있는 인문학 강좌의 실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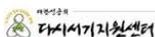


## IV. 성 프란시스대학 인문학 과정의 운영과정

### 5) 전문성을 담보한 교수진

- 인문학 전문성과 소통의 강좌진행을 위한 전문가 초빙으로 노숙인의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 인문학 프로그램으로서 운영 지향

구분	과목	성명	경력
학장	-	여재훈(루가)신부	다시서기센터 소장
아카데미디렉터	문학	안성찬	서울대학교 교수
교수	한국사	박한용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실장
	글쓰기	박경장	명지대학교 교수
	철학	박남희	철학아카데미 대표
	예술사	김동훈	서울대학교 교수
실무/운영	상담/실무	이종수	문화를생각하는사람들 대표



## V. 성 프란시스대학 인문학 과정의 수료 후의 변화

### 1) 주거 생활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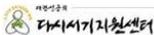
- 6기생 25명 중 22명은 거리노숙을 탈피하고 고시원, 쪽방 등 비교적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하고 있음.

사례 :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자고, 생활하는 것이 점점 불편해지고, 나 혼자서 생각하는 공간이 없어서 불편하다. 내가 편안하고, 따뜻하게 지낼 공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 이 공간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이 된다.”

### 2) 학습 태도의 변화

- 교수진 모두 인문학강좌에 참석한 대부분의 학생들이 일반적인 대학생들보다 적극적으로 활발한 모습으로 강의에 열중했으며 교수진들도 그러한 학생들의 모습에 고무됨

사례 : “작문 강의과제로 제출한 학생의 글을 읽은 소설가 공지영씨가 감명을 받아 성 프란시스대학 학생들을 위한 특강을 하고 학생들과 함께 소설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에 대해 토론을 하였다.”



## V. 성 프란시스대학 인문학 과정의 수료 후의 변화

### 3) 일상 생활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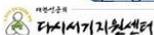
- 옷이나 외형적인 모습에서 변화가 보이고 있음. 과거 좋지않던 위생상태에서 벗어나 깨끗한 모습으로 생활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역력하며, 이발이나 목욕, 신체적인 청결에도 신경을 쓰기 시작함. 모자, 목도리 등으로 외양을 꾸미기도 함.

사례 : “나도 이제는 어엿한 대학생인데 깨끗한 모습으로 다니고 싶습니다. 멋져 보이고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멋져보이는 모자와 외투를 구했습니다.”

### 4) 정서적 변화

- 대부분의 학생들은 과거를 비관하였으나, 인문학교육이후 현실과 이상에 대한 괴리에 대해 두려워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희망을 갖고 자신의 소중함에 대한 이야기를 함.

사례 : “과연 내가 인문학과정을 마치고 난 뒤에 내가 원하는 이상이 높아져서 내가 처한 현실과 맞지 않는다면 그 차이를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내 가족에 다가가려고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이제는 옆에는 없는 가족이지만, 나의 잘못을 반성하고 다른이들에게 더욱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V. 성 프란시스대학 인문학 과정의 수료 후의 변화

### 3) 대인 관계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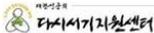
- 거리에서 만난 노숙동료들간에는 서로에 대한 불신감이 커서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았음. 그러나 인문학과정의 학생들간에는 다른 학생들과의 관계를 형성하려고 노력하며, 믿음을 기반으로 하는 공동체를 만들고자 하는 의지를 밝힘.

사례 : “거리생활 중에 내 물건을 도둑맞은 적도 있기에 주변사람들을 믿을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성프란시스대학 사람들과는 믿을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은 항상 나를 믿어주고, 나를 존중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 4) 자활에 대한 의지의 변화

- 인문학 과정 이후 열용직으로의 취업, 고물상, 노점상, 공공근로 등 구체적인 자활계획을 고민하거나 소규모 창업을 계획하는 경우가 매우 많이 있다.

사례 : “자활계획을 세우더라도 과거보다는 훨씬 더 자신감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인문학을 배워서이기도 하지만, 나 스스로의 모습을 누구보다도 사랑하기 때문이다.”



## VI. 결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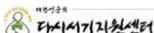
### \* 성찰의 매개로서의 성프란시스대학 인문학 과정의 운영

- 빈곤계층이 주류사회에 통합되게 하는 것보다, 빈곤계층 자신의 성공, 자신의 행복, 자신의 일자리, 자신의 권력이 어떤 것인지 주체적으로 규정하게 하는 것. 이러한 관점에서 인문학교육은 매우 큰 영향

- 성프란시스대학 인문학과정을 통해 세상을 이해하는 다른 사고방식을 소개하고, 비전을 제시하였음. 비록, 성찰의 깊이를 측정할 수는 없지만 이 인문학 교육과정을 통해 희망적인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음.

“빈곤에서 벗어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정치적인 마인드이며, 정치적인 삶으로 들어가는 길은 깊이 성찰하는 것이다.”

- 엘 쇼리스(2006년 한국 방문 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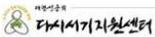
\* 사진 자료



← 성프란시스대학 입학식  
(대한성공회 서울대성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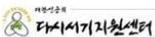
홍보대사 위촉  
(텔런트 윤동환)



\* 사진 자료



← 인문학과정 강의 모습  
(용산구 동자동 성프란시스대학 강의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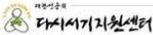


\* 사진 자료

**인문학과정 현장학습**  
(조계종 봉국사 탐방)



**단합대회 및 M.T**  
(단양 생태마을, 한드미마을 탐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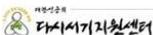


\* 사진 자료



**덕수궁시립미술관 견학**  
(비엔나 미술전시전 참관)

**문화체험(연극관람)**  
(백설공주를 사랑한 난장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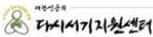


\* 사진 자료



↑  
**문화체험 (연극관람)**  
(지킬 앤 하이드 관람)

**교수와의 만남**  
(박경장 교수와의 만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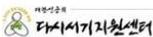


\* 사진 자료



↑  
**가을 체육대회**  
(한강 시민공원 이촌지구 운동장)

**여름 체육대회**  
(한강 시민공원 이촌지구 운동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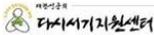


\* 사진 자료



← **학장님과의 대화**  
(성프란시스대학 강의실)

**미술치료 교실**  
(성프란시스대학 강의실)



\* 사진 자료



← **하계 심신수련회**  
(지리산 일대)

**명사초빙 겨울특강**  
(시인 황대권 특강 등)



\* 사진 자료



대한민국  
다시서기지원센터

← 성 프란시스대학 인문학과정 수료식  
(성공회대학교 성 미가엘성당)



기록교사협회  
EXPO 2010

# 노숙인 응급보호 서비스

구세군브릿지상담보호센터장 손 명 식

## 1. 들어가며

IMF 이후 본격적인 노숙에 우리 사회가 관심을 갖게 된지도 13년의 세월이 흘렀다. 국가 경제 위기 이후 수천에 이르는 사람들이 거리에서 숙식을 해야 했으며 노숙의 원인이 개인의 문제라기 보다는 국가와 사회의 책임이 크다는 인식이 형성 되었다.

이로 인해 중앙정부와 서울시 등 지자체는 ‘도시 노숙자 특별보호대책’ 등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노숙인 문제의 해결에 나섰다. 특히 서울시는 1998년 7월 고건 시장이 취임하면서 노숙인 복지사업은 민과 관이 협력하여 진행한다는 취지 아래 시장 자문기구인 「서울시노숙자 대책협의회」를 통한 민관의 공동 노력으로 응급보호대책을 수행하였다.(서울시노숙자대책협의회, 2000)

응급구호에서 시작된 노숙인 복지서비스는 이후 10여년의 세월동안 매우 다양한 수준에서 변화 발전 해왔다.

초창기 노숙인 복지는 노숙인 쉼터 중심의 지원정책으로 공공근로, 의료서비스, 자활의 집등의 주요 서비스 대상은 ‘쉼터 입소’ 노숙인 중심의 지원정책 이었다. 그러나 쉼터 중심의 서비스체계에 편입되지 못한 거리노숙인의 지속적인 증가는 ‘현장서비스’를 현장복지체계의 필요성이 강조되었으며 그 결과 2002년 서울역무료진료소, 상담보호센터 설치등 현장 지원체계가 강화 되었다.

이 글은 현재 거리노숙인을 위한 응급보호 서비스와 향후 개선점 짚어보고자 한다.

## 2. 노숙인 정의와 현황

### 1) 노숙인이란?

노숙인(홈리스 Homeless)의 개념은 아직 어느 한 가지로 합의되지 않았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노숙인을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그 범위와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흔히 노숙인은 잘 곳이 없어서 거리에서 자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하지만 좀더 포괄적으로 보면 거리에서 잠자는 사람 외에도 노숙인 쉼터 같은 임시보호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친척이나 친구의 집에 임시로 생활하는 사람, 쪽방과 같이 극도로 열악한 주거공간에서 거주하는 사람 등 잠재적 노숙상태에 있는 사람들까지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노숙인 및 부랑인복지시설설치·운영규칙」 제2조에 “노숙인이라 함은 일정한 주거 없이 상당기간 동안 거리에서 생활하거나 그에 따라 노숙인 쉼터에 입소한 18세 이상의 자”를 말한다.

### 2) 노숙인 및 시설 현황

우리나라의 노숙인 규모는 IMF 경제위기가 시작된 이후 1998년도 부터 논란이 많았다. 노숙인을 어떻게 정의 하느냐에 따라 노숙인 수는 큰 차이를 나타낸다.

보건복지부는 우리나라 노숙인의 수를 대략 5,000명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이중 4,000명은 보호시설에 입소하여 있고 1,000명은 거리에서 생활하는 노숙인으로 파악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에서 발표하는 노숙인 수와 시설현황은 아래와 같다.<sup>11)</sup>

#### (1) 노숙인 현황

(단위:명)

계	시 설 입 소			거리노숙
	소 계	쉼터 (38개소)	상담보호센터 (5개소)	
2,815	2,358	1,797	380	638

11) 2010년 10월말 기준 노숙인 현황, 서울시

## (2) 시설 현황

(단위:개소)

계	쉼터									상담보호센터
	소계	일반 쉼터	재활 쉼터	특화쉼터 (14)						
				여성	모부자	노인	장애인	회복	기초 해결	
43	38	23	2	1	4	3	1	3	1	5

## 3. 노숙의 원인

노숙인 응급보호서비스에 대해 논하기 이전 선행되어야 할 문제는 노숙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서비스의 강구일 것이다.

대부분 IMF당시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거리에 대량으로 발생한 실직 노숙인들은 초기 가정으로 돌아가거나 장기 노숙으로 현재 까지 거리에 남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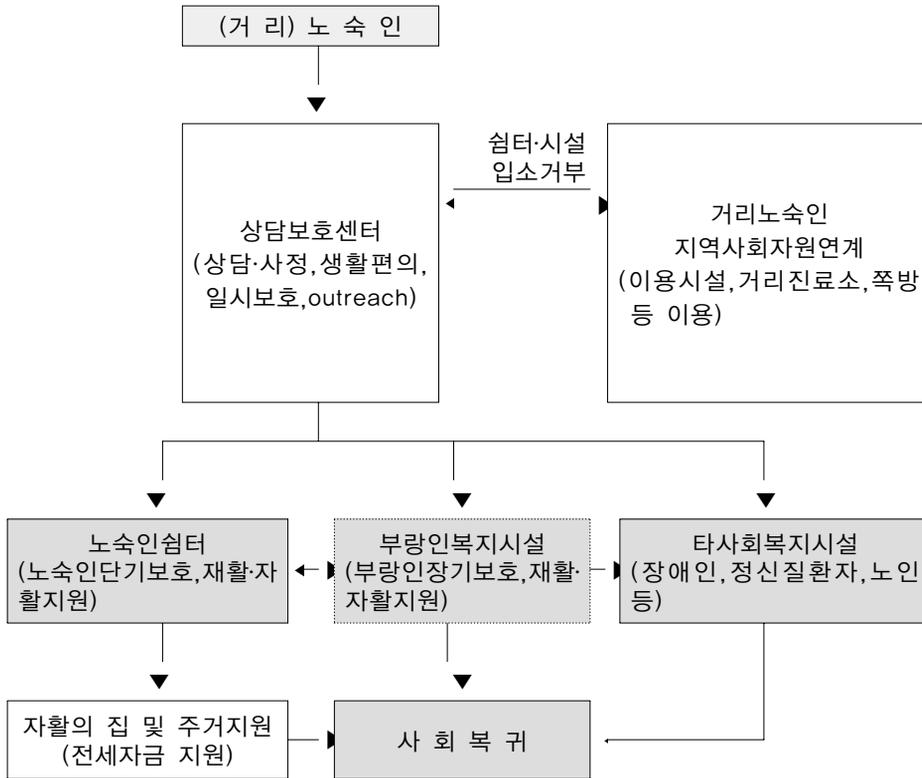
그리고 가정환경적인 문제, 건강문제, 정신문제, 알콜문제, 신용문제, 취업문제등 노숙인의 발생 원인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브릿지상담보호센터 거리노숙인 설문조사 결과 실직으로 인한 노숙이 42%로 가장 많았으며, 대부분의 거리노숙인들은 실직, 경제 문제, 도박등으로인해 노숙을 시작하였고 장기노숙으로 인해 건강악화, 재취업 실패, 의욕상실등으로 이어지고 있다.(브릿지상담보호센터, 2009)

노숙으로 유입과정과 개인이 갖고 있는 문제를 파악, 해결하고 노숙 문제를 둘러싼 사회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 4. 거리 노숙인 보호체계

노숙인복지전달체계 상에 노숙인복지체계는 노숙인에 대한 신속한 보호와 이를 통한 사회복지서비스나 프로그램 제공 등으로 노숙인들의 자활경로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경로를 살펴보면 우선 상담보호센터에는 노숙인의 욕구와 상태에 따라 노숙인쉼터, 장애인시설, 병원, 기타사회복지시설의 전문 기능을 수행한다. 그리고 노숙인 쉼터는 사회복지귀를 위하여 재활 및 자활지원, 자활의집 제공등 주거지원으로 사회통합을 촉진하는데 있다.



## 5. 노숙인 응급보호서비스

경제위기 이후 급증하던 노숙인들은 발빠른 노숙인정책에 힘입어 여러 노숙인 쉼터에 입소하였다. 그러나 2001년 이후 쉼터 입소자가 감소하기 시작하면서 노숙인 지원 사업의 효과성이 미비 했다는 지적과 아울러 적절한 사정기관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현장과 밀접하게 위치하여 쉼터 입소 요청자를 전문상담하는 상담보호센터(Drop-in Center)를 2002는 11월 서울2, 부산1 개소가 개소하였다. 상담보호센터는 상담기능 이외에 거리노숙인들이 반드시 쉼터에 입소하지 않더라도 본인이 선택한 거주공간에 머물면서 자유롭게 세탁, 목욕등 편의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2002년 4월 거리진료소가 상설화 되어 서울역 앞의 소규모 공간을 개조하여 진료사업을 시작하였다.

## 1) 거리 응급보호 서비스

### (1) 상담서비스

아웃리치는 노숙인에게 필요한 의료, 정신건강, 영양, 사회복지, 주거서비스등을 사정을 통해 노숙인 응급보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최초의 결정적 단계이다.

#### ① 상담소

1998년부터 서울역, 영등포역 중심으로 운영중이며, 개인 상담을 통해 정보제공, 시설연계, 일자리 정보제공 등 거리노숙인의 지역복귀를 돕는다.

#### ② 아웃리치(out-reach)

아웃리치는 현장 응급보호체계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거리노숙인에 대한 즉각적인 대처와 사정 연계를 통해 거리 노숙인의 응급보호에 노력하고 있다.

현재 아웃리치는 4개의 상담보호센터와 서울시정신보건센터, 재활쉼터에서 매일 거리 노숙인을 대상으로 현장 상담을 진행중에 있다.

### (2) 무료진료서비스

거리노숙인들의 건강관리 및 질병치료를 위해 진료, 투약, 병원의뢰, 상담과 결핵 노숙인관리등 거리노숙인의 전반적인 건강관리와 입원 치료가 필요한 노숙인의 병원 의뢰를

### (3) 무료급식서비스

서울시에서는 거리급식의 비위생적이고, 노숙인들의 자존감을 저하시키는 거리급식을 줄이고자 2007년 7월부터 상담보호센터내 저녁 무료급식을 시행하고 있으며, 2010년 5월부터 서울역 무료급식소 '따스한 채움터'를 개소 거리급식을 실내급식으로 전환하고 있다.

### (4) 그밖에 응급보호서비스

#### ① 동절기 응급구호방(동절기 운영)

#### ② 거리노숙인 임시주거지원사업(2010.10.1~12월 한시적 지원)

## 6. 상담보호센터의 응급보호서비스

### 1) 상담보호센터 응급보호서비스

#### ① 상담서비스

- 거리노숙인 기초 상담을 통해 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제공 (시설입소, 취업, 신용, 생활 상담등)

#### ② 무료급식서비스

- 비위생적인 거립급식과 노숙인의 자존감 향상을 위해 2007년 7월 이후 상담보호센터 저녁급식 시행,

#### ③ 응급숙박서비스

- 거리노숙인들의 일시적인 잠자리를 제공

#### ④ 의료서비스

- 서울역 무료 진료소 이외에 상담보호센터내 간호사 상주, 간단한 의약품 제공, 응급처치, 건강 상담 진행

#### ⑤ 편의서비스 제공

- 목욕, 세탁, 이미용, 물품보관등 노숙인의 청결과 편의 제공

#### ⑥ 임시주거지원

- 노숙으로 인한 건강상의 문제로 근로능력이 없는 거리노숙인을 대상으로 임시주거 지원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이 가능하도록 지원

#### ⑦ 정신보건상담

- 지역 정신보건센터 및 서울시정신보건센터를 통해 거리 및 상담보호센터 내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노숙인 상담 및 병원 연계

- ⑧ 그밖에 노숙인 보호 및 자활에 있어 특별자활근로사업, 서울시 일자리 사업, 취업연계, 각종 프로그램 진행

### 2) 현장보호체계와 상담보호센터의 역할

외환위기 이전까지의 노숙인에 대한 대책은 수용과 격리보호에서 외환위기 이후 급증하는 노숙인 문제에 대해 기존의 사회복지시설 체계가 적절히 기능하지 못하자 ‘쉼터’라는

새로운 응급보호시설을 민관 협력 하에 가동하였다.

그러나 수용과 격리, 쉼터 입소등이 노숙인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 방안이 될 수 없었기에 거리 노숙인의 현장보호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상담보호센터의 역할이 커지게 되었다.

이는 운영지침에 나타난 바와 같다

① 1차적으로는 거리에서 생활하는 노숙인(부랑인 포함)에 대한 상담을 통하여 대상자의 특성 및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 적합한 시설(쉼터 등)로 인계 등 분류사정 기능을 수행한다

가. 알콜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은 알콜재활 및 정신재활 전문쉼터(관련 자활사업수행 쉼터)로 안내하거나, 진료가 필요한 자에 대하여는 무료진료소 또는 보건·의료기관에 진료의뢰 조치한다

나. 건강상 문제가 적고 자활의지가 있는 자의 경우 등 비교적 자활가능성이 많은 자는 가급적 자활전문 쉼터로 인계하거나 취업안내로 자활 연계 또는 사회복지 조치한다.

다. 현장순회 상담 강화로 거리노숙인 현장보호 및 안전조치(특히 동절기) 강화

② 거리노숙인에 대하여는 세탁, 목욕, 아미용서비스 등 생활편의 제공 및 거리상담을 통한 긴급보호가 필요한 노숙인 등에 대한 일시적 간이숙소를 제공한다.

## (2) 운영방침

### ① 노숙인 현장보호체계로서의 역할

가. 상담보호센터는 노숙인 보호체계의 현장보호체계로서 거리노숙인 지원(상담, 생활편의 및 응급잠자리 제공 등), 노숙인 보호체계(쉼터 등)로의 진입 및 지역사회복지지원,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담당하는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

나. 해당 지역의 노숙인 등 발생 현황에 따라 상담보호센터를 설치하되, 그 기본적 역할과 운영은 반드시 부랑인및노숙인보호시설설치운영규칙(보건복지부령 307호)에 위배됨이 없어야 한다

### ② 상담보호센터 설치와 운영에서 지켜져야 할 세부원칙은 다음과 같다

- 노숙인 쉼터 및 부랑인 복지시설 등 보호시설, 기타 복지시설 및 자원을 고려한 현장보호체계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 상담보호센터는 노숙인의 선택권이나 인권을 존중하는 원칙 하에 운영한다.(법률 등에 의하지 아니하는 강제적 조치나 수용보호 금지)

- 노숙인이 원하는 쉼터나 기타 사회복지시설로의 의뢰와 분류체계로서의 기능 수행에 있어서 해당 지역의 복지자원과 연계하여 조치한다.

- 각 지역에서 발견된 보호대상자는 가급적 해당 지역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 상담보호센터는 해당지역의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체계와의 연결고리로서 역할을 수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상담보호센터가 노숙인 등 보호대상자의 욕구에 대하여 현장보호서비스를 양적·질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3) 세부기능 및 역할

① 상담 및 의뢰 기능

가. 상담보호센터는 거리 노숙인에 대한 상담을 통하여 대상자의 특성 및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 노숙인 쉼터 또는 부랑인복지시설 등 적합한 사회복지시설과 자원으로 인계 등 상담 및 의뢰 기능 수행한다.

나. 알콜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은 알콜재활 및 정신재활 전문쉼터나 관련 사회복지시설로 안내하거나, 진료가 필요한 자에 대하여는 무료진료소 또는 보건·의료기관에 진료의뢰 조치한다.

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상담보호센터에서 의뢰되는 노숙인이 해당지역의 노숙인 쉼터, 부랑인 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시설의 정원 한도 내에서 입소 의뢰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협조 체계 구축한다.

라. 상담보호센터는 거리 노숙인 및 서비스 수요자에 대한 전문적 상담과 사정이 가능하도록 상담요원 등 관련 인력을 활용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한다.

마. 지방자치단체와 상담보호센터는 의뢰가 가능한 노숙인 쉼터, 부랑인복지시설 등 관련 사회복지시설 및 자원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고 관련 조치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조치한다.

② 생활지원서비스 제공

가. 1차적으로는 거리에서 생활하는 노숙인 등에 대한 생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나. 거리노숙인에 대한 세탁, 목욕, 이미용서비스 등 생활편의 제공 및 거리상담을 통한 긴급보호가 필요한 노숙인 등에 대한 일시적 간이숙소를 제공한다.

다. 생활지원서비스는 급식, 숙박, 세탁, 목욕, 물품보관, 이미용서비스, 응급의료지원 등을 포함한다.

라. 급식은 자체 제공이나 해당 지역의 (무료)급식 등 사회복지자원과 연계 하여 제공한다

마. 숙박서비스는 필요시 단기적으로 제공하되, 지역사회의 노숙인 쉼터나 사회복지시설자원과의 연계 속에서 제공하여 상담보호센터가 상시생활 시설화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바. 의료서비스는 지역사회의 응급의료지원체계 등과 연계체계를 마련한다.

사. 생활지원 서비스의 제공방법과 기준 등에 대한 상담보호센터 자체의 세부규정을 이용자에 대한 편의차원에서 마련하고 공지한다.

③ 현장상담(outreach) 및 보호

가. 상담보호센터와 지방자치단체는 관내 거리 노숙인 밀집지역 등에 대해 주기적으로 현장방문 및 상담 활동을 통해 현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서비스 대책을 강구한다.

나. 지방자치단체와 상담보호센터는 현장상담활동에서 거리 노숙인 및 서비스 수요자에 대한 급식 및 의료 등 응급상황에 대한 조치를 강구한다

다. 상담보호센터는 현장상담활동에서 상담을 통해 상담보호센터, 노숙인 쉼터 및 관련 사회복지시설과 서비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취업상담

## 7. 응급보호체계의 문제점과 전문화 방안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노숙인의 수용과, 격리, 시설 입소의 한계에 도달할 무렵 현장 보호체계로서의 거리노숙인의 응급보호서비스에 있어 상담보호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것을 운영지침 내 언급하고 있으나 상담보호센터의 기능과 현재 거리실태에는 맞지 않는게 사실이다.

첫째, 상담보호센터가 거리현장에서 노숙인에 대한 현장상담(outreach)을 진행 하고 있으나 거리노숙인에 대한 즉각적인 응급지원은 불가능한게 현실이다. 현재 정신, 알코올 문제를 가지고 있는 노숙인의 경우 치료가 우선이나 인권이 우선이나에 대한 문제에 많이 부딪치고 있으며, 본인이 희망하지 않는한 응급지원은 불가능 할 수 밖에 없다.

둘째, 상담보호센터의 1차적인 기능인 거리노숙인의 시설입소 연계가 이루어 지고는 있으나 대부분의 거리노숙인들은 쉼터등 시설 입소를 거부 하고 있어 이 또한 역할 수행에 한계가 있다. 어느 쉼터 관계자의 경우 “상담보호센터에서 노숙인을 묶어두고 보내지 않는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셋째, 위에 상담보호 센터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지 못하면서 거리노숙인들이 쉼터 보다 상담보호센터를 선호하는 이유에 대한 고찰을 통해 현재 응급보호 및 노숙인 지원체계의 흐름에 변화가 필요하다.

또한, 거리에서 원하는 욕구들을 반영할 수 있는 원스탑 서비스가 필요하다. 거리노숙인의 경우 시설 입소등을 희망할 경우 다음날 상담보호센터를 방문하여 재상담후 시설 담당자에게 연계하고 있다. 이 또한 현장 담당자와 거리노숙인의 불편함으로 인해 시설 입소 및 응급보호시 발생되는 문제의 하나이다.

현재 상담보호센터는 운영지침상의 기능은 수행하고 있으나, 시설입소 기피 노숙인 보호, 시설내 무료급식, 각종 프로그램 수행 등 1차 기능 이외에 더 많은 부분은 감당하고 있어 적절한 지원 체계의 변화가 필요하다.

현장상담(out-reach)의 경우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노숙인의 개입에 있어 의료개입과 사정역할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현재 서울시, 서울시정신보건센터, 경찰, 상담보호센터

실무자로 구성된 특별지원팀이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으나 단순 정신상담에 그치고 있지 않아 의료개입을 통해 적극적 보호가 필요하다. 물론 치료와 인권의 문제가 여전히 존재 하고는 있으나 현재 보다 좀더 적극적인 전문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 9. 마치며

경제위기 이후 노숙인 문제에 관심을 갖고 정부와 민간이 서비스를 제공한지 10여년이 지났다. 그동안 노숙인의 문제에 대한 토기 응급구호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의한 제도화 편입은 노숙인 지원사업에 대한 정책적 안정을 위해 성공적인 성과로 인정하고 있으나 현장에서 노숙인 응급보호 및 지원체계에 있어서는 부족함이 제기되고 있다.

10여년 동안 거리노숙인의 발생 원인의 변화, 최초 노숙인의 장기 노숙으로 인하여 거리는 많은 변화를 거쳐 왔다. 그러나, 정작 노숙인 보호에 있어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정부와 노숙인 시설은 과거 10여년 전과 같은 방식의 지원체계를 유지해 왔다.

거리노숙인 현장 응급보호 및 상담보호센터, 시설 보호에 있어 정책적인 뒷받침과 현장 실무자들의 끊임없는 노력이 없는 한 10년전, 10여년 후에도 지금과 같은 문제의 해결 방안을 찾고 있을지도 모른다.

## | 참고문헌 |

황운성. 2007, 「노숙인 복지10년, 새로운 전환의 모색」 “서울시 노숙인정책토론회 ‘노숙인보호 10년 노숙인 복지정책 어디까지 왔나”

이봉재, 2009, 「기독교 노숙인 선교협력과 방안 모색」 ‘2009 노숙인 실태 조사

이태진, 노대명, 남기철, 정원오, 주영수, 김선미, 우선희. 2007. 「노숙인 정책의 평가와 개선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부

남기철, 2007, 「노숙인과 복지시설 10년, 지역사회복귀의 부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부

서울복지재단, 2008, 「노숙인 복지 서비스 매뉴얼」

신원우, 2007, 「노숙인재활사업 10년 평가와 과제」 2007 서울시 노숙인 정책토론회

# 노숙인들의 치유와 회복

전국홍리스연대 정책국장 오 범 석

## 1. 들어가며

한국의 노숙인사회복지는 짧은 역사를 통해 많은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해 온 복지분야이다.

열악한 정책적 제반환경은 말할 것도 없고, 국민적 편견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적 불평등, 그리고 사회복지사들과 관련 복지시설들에 대한 국가적 책임 회피 등을 극복해 왔던 점을 감안하면 민간의 주도적인 사회적 책임의 산물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그 속에서 한국 교회의 역할은 큰 족적을 남겼다. IMF로 국가경제가 곤두박질 치던 1998년에 노숙인의 수는 과히 상상을 초월할 만큼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무려 서울역에 약 1,000여명의 신규 노숙인, 즉 자신이 노숙을 하게 되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던 일반인들이 국가경제위기를 맞아 거리로 밀려 나온 것이다.

그때 종교계에서 급하게 급조되어 수습을 모색하며,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라고 함)에 노숙인의 수요증가와 관련된 수습책을 요구했던 주체가 ‘전국실직노숙인종교시민단체협의회’(이하 ‘전실노협’으로 함) 였다.

성공회, 구세군, 장로교(통합), 기독교장로회, 가톨릭, 조계종(6개종단)이 그 주인공이었다.

그 이후에 12년이란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노숙인사회복지 전달체계도 자리를 잡은 듯하지만, 여전히 응급구호 수준의 시설보호 수준을 면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한국교회가 노숙인사회복지에서 차지하는 역할은 어떻게 변모되어 왔는가? 초기에 각 교단별로 부족한 사회복지시설(이하 ‘쉼터’라고 함)을 확보하며 부족한 임시주거공간을 확보하면서 정부와 파트너로서 보조금을 받아 시설위주의 사회복지실천을 담당해 왔음은 나름대로 노숙인의 응급구호 차원에서 필요한 역할을 담당했다고 평가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아쉬움이 남는 것은 시간이 경과하면서 한국의 여느 사회복지 분야에서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처럼 시설주의의 병폐에 안주하는 모습으로 변모하고 있는 점이다.

정부보조금을 받아 시설을 만들고, 운영하다보면 기관운영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되는 것은 불가피하고 당연한 것이다. 하지만 최소한 교회는 사회의 모순을 개선하고 다양한 주체들을 조화롭게 통합해 나가야하는 시대의 요구에 응답해야하는 책임이 있지 않은가.

아쉽게도 많은 쉼터들이 현실에 안주하여 노숙인들에게 삶의 비전과 희망을 품도록 도움이 되는 사회복지사업과 치료등에 적극적인 활동보다는 소극적인 역할에 만족하는 듯하다.

그러나 최소한 특수목회로 노숙인사회복지 분야에 참여하고 있는 교회들은 정부 정책의 일관성이 없음과 국가적으로 노숙인의 안전망 확보에 미흡한 대책 등에 결단을 요구해야 한다.

이제 한국교회는 노숙인사회복지 분야의 양적인 면에서는 충분히 역할을 하고 있음을 자타가 인정한다. 이제 저소득층 중에서도 가장 희망 없는 노숙인에게 국가적으로 사회안전망이 마련되는데 올바른 제도로 탈바꿈해 나갈 수 있도록 견인차 역할을 해야 할 때가 되었다. 단순히 동정(sympathy)에 의한 구제사업을 넘어 제도적 개선을 촉구하고 정부가 노숙인정책에 대안을 제시하는 수준으로까지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아울러 교회가 홈리스사회복지 분야에서 자력적으로 갱신 또는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하는 점을 필역한다면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노숙인사회복지에서 각 교단별 협의와 조정을 위한 신뢰를 담보한 대화가 필요하다. 현재 사회복지분야에서 각 교단별 대화통로는 ‘한국종교사회복지협의회’가 있기는 하지만, 노숙인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적으로 논의할 수 없는 큰 규모의 협의회 없다.

그러므로 ‘전실노협’에 이어 민간분야에서 대체적인 합의에 의해 출범한 ‘전국홈리스연대’를 통해 대화의 소통을 이어 갔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또한 노숙인사회복지의 범위는 그동안 다양한 민간의 주체들에 의해 다양한 운동의 성격으로 규정되며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이미 노숙인사회복지는 그 대상자들의 다양한 유형만큼이나 다양한 옹호활동과 구제활동들이 진행되고 있으며, 그 다양한 노숙인 관련활동 중에 교회에서 참여하는 사회복지분야는 사회복지시설 중심으로 발전되어 왔다.

물론 정부 지원을 받는 사회복지시설들의 활동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노숙인사회복지에서 중심(main action)에 서 있고, 그 중에서도 교회가 차지하는 사회선교는 약 62.8%를 점유하고 있다.

〈표1〉 노숙인복지시설의 운영주체로 참여한 종교단체

구분	개신교	가톨릭	불교	기타	계
쉼터, 상담보호센터, 쪽방상담소(개)	54	5	8	19	86
비율(%)	62.8	5.8	9.8	21.6	100

자료: 한국교회봉사단, 서울시노숙인복지시설협회(2009); 이봉재(2009) '전국노숙인실태와과제'에서 재인용

그러나 정부보조금을 받으며 사회복지사업을 양적으로 팽창시켜나가는 것이 교회에서 장려하거나 더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것이 세 번째 과제가 되었으면 한다.

교회야 말로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 받아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 확실한 선교 모델은 교회에서 재원을 사회에 환원시키는 접근이 필요하다. 이는 국가 예산을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종교적 정체성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교회가 대사회적으로 공동체의 나눔을 실천하고 기여하는 모습으로 이미지화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제는 교회가 노숙인사회복지에 더 많은 관심과 전문성을 지원하고 다양한 노숙인사회복지의 활동, 즉 인권운동, 당사자옹호활동 등의 민간의 운동조차 노숙인에게 필요한 활동으로 재인식하고자 하는 포용성이 요구된다.

네 번째로 교회가 노숙인사회복지사업의 소극적 활동과 교단간, 혹은 민간내에서 단절된 대화의 채널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

이와 같은 신뢰의 한계를 지목하는 이유에 대해 대부분의 노숙인사회복지 참여 목회자는 다른 이유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그것은 정부의 적은 예산의 규모를 민간들이 상호경쟁을 통해 재분배해야 하는 점 때문이다.

그래서 예산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서로 동지적 결합을 자청하지만, 잘못된 정책을 바로 잡자는 원칙론적 사회정의에 대한 요구에 대해서는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는 것이 대부분의 시설 운영기관의 입장이다.

이와같은 현상에 대한 이유는 분명하다. 예산의 권한(hegemony)을 가지고 있는 정부관계 자들과 불편한 관계를 만들고 싶지 않은 이유일 것이다.

이런 사회적 정의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견지하다보니 교회의 노숙인사회복지는 어느덧 부패하고, 타도되어야 할 대상으로 전락되어지고 있는게 현실이다.

또한 각 교단별 내부 모습 또한 상호 치열한 시설운영과 관련된 선의의 경쟁과 기타신규사업 확보를 위한 과도한 경쟁으로 사실상 기독교의 노숙인사회복지 내에서 조차 대화의 단절을 스스로 양산해 온 것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그러므로 이번 한국기독교사회복지엑스포를 기점으로 각 교회별로 대화와 신뢰를 바탕으로 민간영역의 활동을 포용하는 시발점으로 삼고, 더불어 기독교의 사회선교를 발전적으로 모색하는 장으로 삼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사례를 통해 한국교회가 담당해야 할 역할을 숙고하고 재구성할 필요성을 느낀다.

그런데 그 범위는 단순히 노숙인 한 개인의 사례와 생애주기를 연구하는 것으로 얻기는 어렵다. 사람이라는 것이 다양성의 총체적 집합점이어서 단편적이고 특정분야의 사례만을 가지고는 대안을 찾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의 주제인 <노숙인들의 치유와 회복>이란 주제를 우리가 실제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연구의 접근도 다양한 방면에 걸쳐 진행되어야 한다는 전제를 갖고자한다.

만약, 성급한 성과주의로 인해 궁극적이고도 중·장기적인 계획이 검토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지난 12년간의 실패한 관행을 답습하는 결과를 낳게 되어 한국의 노숙인사회복지는 지금의 정체되어 있는 상태에서 한걸음도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이 염려스럽다.

그러므로 이 시간 간략하게라도 노숙인사회복지의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하여 그 풀리지 않는 원인을 진단해보고 개선의 방향성을 한국교회의 과제로 제안하고자 한다.

## 2. 정책적 혼선과 그 대안

### 1) 노숙인의 명칭 통합 < 사례 1 >

지난 2009년 12월 10일 mbn뉴스2에서는 '찬반 외국어 법률용어 사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중앙부처별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소개 했다. 찬성하는 쪽은 보건복지가족부였고, 반대하는 쪽은 법제처였다.

배경은 이렇다. 2005년 정부는 사회복지 전반에 걸쳐 지방이양화사업이라는 정치적 합의에 따라 모든 사업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시켰다.

그런데 '부랑인사회복지시설연합회'만은 당시 보건복지부의 관할로 남겨졌다.

그런데 어느 나라나 선진국이라면 사회적 안전망의 최후 보루라고 여겨지는 홈리스(homeless) 사회복지를 국제적으로는 공통된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 적절한 제도가 마련되는 것이 보편적인 패턴이었다. 그러나 한국의 상황은 전달체계부터 풀릴 수 없는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

정부의 예산 지원이 중앙정부에서는 '부랑인'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노숙인'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홈리스복지사업'을 통합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명칭의 통일이 필요했던 것이다.

현재 노숙인사회복지사업이 제도적으로는 아직 자체법도 없는데다 지금은 2005년도에 마련된 사회복지사업법 내에 「부랑인및노숙인보호시설설치·운영규칙」에 따라 정책이 수립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2008년 11월부터 한국홈리스복지사업 5개년기본계획을 계획하면서 사회복지사업법 내에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한 방편으로 현재 부랑인과 노숙인으로 따로 호칭되는 명칭부터 통합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정책적 필요에 따라 법적·제도화 당위성을 홍보하면서 명칭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한글학회등의 한글단체의 반대로 명칭통합이 법제처에서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이 사례는 현재 노숙인사회복지의 정책적인 과제를 한 눈에 알 수 있게 하는 상징적 사건이다. 물론, 이 문제를 법제화시키기 위해 지금도 '전국홈리스연대'와 정책위원들로 구성된 학자들, 그리고 '부랑인복지시설협의회' 관계자들과 보건복지부가 합의와 조율을 반복하며 다양한 출구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다양한 이유들로 인해 그 과정이 쉽게 이루어지기는 어려움이 많다. 하지만, 노숙인사회복지사업은 한 지자체의 몫이라고 하기에는 노숙인의 특성상 대부분이 대도시를 중심으로 생활거점을 두고 생활하기 때문에 현실적이지도 못하고, 서로 다른 지자체별로 대응하기에도 정책적 일관성이 떨어지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노숙인사회복지 만큼은 중앙정부에서 관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기대하고,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당연하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문제는 정부의 예산인데, 현재 지방자치예산

중에 정부에서 지원되는 예산은 일반교부금 형태, 즉 총액배분자율편성(Top-down)제도로 지원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의회와 자치단체장의 마인드에 따라 배분되는데, 현실적으로 이 예산이 사회복지예산으로 할당되기에는 정치적인 선택에서 빚어지는 한계가 있다. 또한 각 지자체마다 사회복지 마인드의 편차가 크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분야에서도 주목을 받지 못하는 주변에 머물고 있는 노숙인사회복지의 경우에 기본적인 지침에 명시되어 있는 예산조차도 할애 받기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다.

그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종사자의 처우개선은 생각도 할 수 없고, 근무환경도 여전히 열악한 형편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프로그램 예산이나 심지어는 동절기에 난방비와 같은 예산조차 별도로 편성되지 못하고 있으며, 쉼터나 상담보호센터에서 생활하는 입소인들의 불편도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한국교회는 우리 사회에서 자신들의 인권적 권리와 사회적 책임에서 배제되고 있는 수만명의 홀리스와 수천명의 노숙인에게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을 재구축해 줄 수 있는 정치적 환경과 사회적 배려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필요하다면 정당한 법적권리에서 배제되고 있는 노숙인과 노숙인사회복지종사자들의 권리를 정부에 촉구해야 하고, 그 속에서 사회선교 및 특수목회를 담당하는 많은 목회자들에게 교단차원에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 주어야 할 것이다.

## 2) 노숙인의 실태조사와 지역교회의 노숙인사회복지 활동

### 〈 사례 2 〉

지금까지 12년의 역사속에서 전개되고 있는 노숙인사회복지가 각 지방자치단체로 정책이 파편화 되면서, 지속적이고 중·장기적인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사회복지 서비스의 전체 수요와 공급의 실태를 조사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수순임에도 불구하고 단 한차례도 중앙정부차원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노숙인의 실태조사를 세부적이고, 객관적으로 조사한 적이 없다.

이와 같은 결과만으로 한국의 노숙인사회복지의 현주소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도 서울시의 경우에 상담보호센터<sup>12)</sup> 협의회를 중심으로 정부의 아무런 예산과 지원없

이 민간단체들의 다위성만을 가지고 자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과정에 있다.

언제까지 민간의 숨은 노력만으로 국가의 사회적 안전망을 담보하겠는가?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최근에 노숙인의 수요 추세는 그 범위가 점점 더 넓어지며 증가하고 있다.

흔히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거리노숙인(rough sleeper)의 경우, 평균적으로 서울시의 대규모 역사 주변인 영등포, 서울역, 종로, 을지로, 청량리 등을 중심으로 약 750명~900여명 정도 안팎으로 집계되고 있다.

하지만 이조차도 정확한 수치라고 하기에는 객관성이 떨어진다.

그리고 쉼터 입소를 통해 임시거주지를 이용하는 노숙인은 약 3,000여명 정도로 집계되고 있다. 물론 대상자들은 늘 같은 사람이 아니다. 또한 쉼터에서 퇴소한 노숙인의 경우 안정적으로 사회에 재정착했다는 데이터 또한 발표된 것이 없으며 그 분들의 재정착을 판단하는 기준안조차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노숙인이 쉼터 퇴소 후에 재정착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 결국 어딘가에 그들은 생활하고 있을텐데, 그곳이 꼭 거리가 아닐 확률은 훨씬 더 높다.

이것은 거리생활과 쉼터생활을 반복적으로 이용하는 노숙인에 비해서는 매우 바람직한 유형의 주거이동 패턴이기는 하지만, 그 분들이 머물고 계시는 임시주거지 역시,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점을 제외하고는 노숙인 쉼터보다도 더 열악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노숙인 스스로 지니고 있는 마지막 자력심을 가지고 다시 재기하는데 성공하기는 쉽지 않다.

임시숙박소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고시원, 쪽방, 여관, 사우나, pc방, 만화방, 패스트푸드점 등 24시간 영업을 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임시숙박을 하는 형태로 다변화되고 있다.

이런 비주택거주지의 환경은 노숙인을 홈리스로 명칭하게 하는 직접적인 이유가 되었고, 노숙인사회복지의 관심 범위를 증폭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그래서 민간에서는 최근에 시범사업과 정부사업의 과정을 거쳐 정부에서 매입한 임대주택을 엮기의 보증금과 제반조건으로 노숙인과 쪽방 주민들에게 공급하는 사업으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그런데 지역교회의 사회선교 현황은 어떤가 살펴보자.

기존에 한국교회에서는 주로 거리노숙인을 상대로 담당했던 무료급식과, 교회에서 나누어

---

12) 노숙인들이 긴급한 도움이 필요할 때에 임시 주거(2주일)공간을 무료제공하거나, 상담, 목욕, 식사 등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Drop-in의 기능을 하는 임시상담소

주는 약 500원~1,000원 정도의 여비, 그 여비를 알코올 중독을 연명하는데 사용하는 분들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주민등록말소를 갱신해주면서 5만원~10만원 과태료를 부담해 주는 것 등의 단선적인 구제를 실천한 것에 자족하는 느낌을 받는다.

그러나 그렇게 많은 한국교회가 박애주의와 그리스도의 가르침인 사랑의 정신으로 알고 실천하였는데,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 아님을 인식하고 새로운 도전과 실천의 참여에 귀를 기울였으면 한다.

노숙인 및 빈민선교의 실천방법으로 몇 가지 숙고해야 하는 가치와 전략을 제안한다.

첫째, 도움을 주는 목적을 재설정해야 한다.

구제는 신앙적인 의무가 아니다. 구제를 통해 수혜자의 자기만족에 더 많은 비중을 두어서도 안된다. 이제 노숙인은 바라보는 한국교회의 시선이 좀 더 직관적일 필요가 있다.

여기서 직관이라함을 수혜자의 입장을 좀 더 세밀하게 살피며,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태도라고 표현할 수 있다. 이것은 '나눔'이라고 전제하고자 한다.

나눔의 정신은 수평적인 정신이 담겨져 있어야 한다. 곧 나눔을 주체적으로 하는 자와 그 나눔의 수혜를 받는 자가 격이 없는 것이다.

이런 마음이 전달되어야만 노숙인처럼 정신적인 '상처'(Trauma)가 있는 사람들에게 나눔의 마음이 전달될 수 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는 '나눔'의 실천조차도 나눌 수 있는 여건과 환경에 마련된 사람들의 전유물처럼 여겨지며 나눔운동이 확산되어지고 있다.

이런 영향을 확산 시킨대는 비영리단체(NGO)의 지나친 경쟁적 마케팅과 소외계층에게 국가가 예산은 삭감하면서 민간의 재정을 끌어들이기 위한 고도의 정치적 재분배정책의 기초에서 파생된 정치이데올로기의 결과라고 본다.

나눔의 정신이 필요한 것은 사회는 하나의 공동체이자 공동의 생명공동체로서 모두가 유기적 관계 아래 놓여 있다는 인식을 공유하기 위함이다. 너 없는 내가 없고 나 없이 네가 없다는 말이다.

이런 나눔의 정신은 노숙인에게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반면, 교회가 수혜자의 위치에 서서 재정의 여유가 있으면 구제하고 재정의 여유가 없으면 그마저도 못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나눔을 실천한다면 나눔의 정신을 왜곡할 뿐 아니라 사회적 약자들에게 기부와 나눔의 기회마저 빼앗는 결과를 낳게 된다.

둘째, 무료급식은 정부와 함께 공조하며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단적인 예로 쉼터를 아무리 만들어 놓아도 거리에서 밥 먹을때가 많으니 쉼터 입소를 거부하더라, 그래서 노숙인의 자활정책이 힘을 받기 힘들다는 말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숙인에게 무료급식의 필요성은 너무 중요하다. 하지만 무료급식에 대한 선교에도 이제는 더 발전적인 노력들과 고민이 수반되어야 한다.

우선 거리에서 대낮에 쪽 일렬로 줄세워 밥을 주는 행위는 이제 그만했으면 한다. 그것도 꼭 예배에 참석해야만 밥을 주는 것을 지양해야 할 것이다. 가급적이면 인간 본연의 숙명인 생명의 활동이자, 또 다른 생명을 죽이는 의식, 즉 밥을 먹는 숭고한 시간만이라도 인간적 존엄성을 지킬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을 갖는다.

무료급식에 대안은 작은 공간이라도 편안하게 앉아서 식사를 할 수 있는 실내외 공간의 제공이다.

최근에 서울역에 실내급식소를 서울시에서 마련하여 지상 3층의 건물을 임대하여 시범운영 중에 있다. 그리고 계도하는 것은 그동안 거리무료급식을 하는 종교시민단체에게 시간별로 병행하여 실내급식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교회가 이런 정책에 대해서는 오히려 선도적으로 개척해야 한다. 물론 시범적인 모델을 보여준 교회도 있다. 청량리의 다일공동체, 구세군의 브릿지센터와 성공회 다시서기지원센터, 영등포 광야교회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물론 불가피한 상황은 존재한다. ‘거리의 천사들’이란 단체처럼 자정을 넘기는 시간, 노숙인들이 가장 춥고 배고파 할 시간에 직접 찾아가서 지하도에서 함께 찬양하며 식사를 나누는 사례도 존재한다.

그러나 이제 한국교회가 더 세심히 살펴야 하는 것은 거리노숙인들도 각자 잠을 자는 거리는 자신의 주거공간이자 생활공간의 한 부분이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다.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그 거리가 그 분들에게는 자신이 겨울에 찬 바람을 이겨내는 안정을 가져다 주는 공간이며, 삶의 정주공간이라는 것이다.

이런 거리노숙인들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다면 교회에서 자정 넘은 시간이라도 인근에 작은 실내식당에서 배고픈 설움을 달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큰 배려 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나눔은 정부의 차원에서는 불가능한 서비스이다. 결국 자원봉사자(Volunteer)들만이 할 수 있는 소중한 나눔의 실천인 것이다.

셋째, 밥주면서 예배를 강요하는 선교는 지양되어야 한다.

배고픈 사람에게 밥 주고 따뜻하게 마음을 전달하는 것으로 기독교는 이미 사랑을 실천한

것이다. 강요된 예배와 신앙고백 속에서 진정성을 찾을 수 없다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비난한다. 이런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심지어는 정부의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시설의 경우에 신앙적인 정체성을 강요할 수 없다고 하는 사회적 윤리의 임계점을 알면서도 사회적 윤리는 덜 중요하고, 신앙적인 선교적 사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부 목회자가 존재한다.

신앙인들에게 선교는 중요한 삶의 이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와 소통하고 사회의 공동체로서 최소한의 규칙을 지켜나가는 자세는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복지서비스의 시혜자로 착각하는 순간, 가야오마저도 정당한 요구로 뒤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언제나 수혜자의 입장은 약자이고 의도하지 않아도 자격지심이 생기게 마련이다. 특히 노숙인의 자의사결정권을 무시하고 암묵적으로 강요하는 순간, 그 분들의 마음을 닫히게 될 것이다.

언젠가는 사회복지시설 내에서의 강제적 종교행사와 관련하여 한국교회가 직면할 때가 있을 것이다. 기독교의 입장 정리가 시급하게 필요한 사안이라고 본다.

### 3) 노숙인 시설의 운영에 있어서 교회의 정체성을 살리는 길

#### 〈 사례 3 - 아침을 여는 집 〉

노숙인쉼터에 미래가 있는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노숙인 쉼터는 물론 노숙인에게도 미래는 있다. 그러나 문제는 쉼터라는 한정된 공간에 갇히는 순간 그 미래는 산산히 부숩질 수 있다. 왜냐하면 미래라는 시간적 개념을 쉼터라는 공간적 개념으로 담아 낼 수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사람의 미래는 희망이고 꿈이자 깨달음이다. 그 미래는 쉼터라는 공간이 있다고 저절로 생성되지 않는다는 말이다.

사람은 사람을 만날 때, 자극이 생기는 법, 말장난 같지만 사실이 그렇다.

나는 지난 3년간 쉼터에서 아저씨들을 만나는 것 외에도 교회라는 틀 속에서 목회자로서도 같은 아저씨들을 만났고, 그들과 함께 많은 시간을 가졌다. 그런 작은 대비적 경험을 통해 배운 것이 있다면, 쉼터는 객관적이고 형평성이 있어야 하며 원칙적이어야 하지만, 교회에서 만날 때는 주관적이고 형평성 무시, 때로는 원칙이라는 것도 무시하고 만난다.

그런데, 사람은 희한하게도 허물없이 규정에 매이지 않으면서 인간적으로 만났을 때, 서로의 마음을 열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그래서 나는 우리 법인에서도 노숙인 아저씨들을 과외시간에 가장 많이 접촉하는 사람 중에 하나이고, 또 특혜를 누릴 수 있었다.

지금도 내가 활동을 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내가 속한 법인이 발전하기 때문도 아니고,

내가 목회를 잘해서도 아니고, 또 내가 성취할 수 있는 많은 요인들이 있기 때문도 아니다.

늘 실패하는 삶 속에서 아무도 그늘이 되어주지 못하는 분들이, 잊어질만하면 찾아오셔서 그동안 힘들었던 일들, 자기변명, 기뻐던 일들 등을 쏟아내기 때문이다.

그 순간은 옳고 그른 판단 기준을 가지고 만나지 않는다.

같은 동료애로 만나고, 넋두리를 받아주는 경청자로만 만난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나도 어느새 편안함을 느낀다.

그래서 배웠다. 활동가는 대상자를 위해 있는 존재가 아니라 대상자와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그 분들이 죄절하고 풀죽어 찾아오면 함께 아무 말 없이 식사 한 끼를 함께 할 수 있는 정이 있어 행복하고, 그분들이 좋은 일이 있다고 찾아오시면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어서 행복했다.

가장 힘들고 고단하고 인생을 포기 하고 싶을 때, 단 한 사람.

내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는 사람이 활동가요. 캄캄한 밤 하늘 아래 아무것도 의지 할 것 없는 세상 가운데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물을 수 있는 사람이 목회자이다.

그 활동가와 목회자가 머무는 곳이 쉼터라면 더 좋겠다.

활동가는 그렇게 그 분들의 벗이자, 친구이자, 묵묵히 얘기를 들어주는 그런 존재이다.

오늘도 음성에서 아저씨 한 분이 찾아왔다.

매우 힘든 일이 많았다고 한다.

그리고 결단해야 하는 일도 있다고 한다.

우리 집 앞에 왔다고 전화가 왔다.

그러나 만나지 못했다.

나는 숙직을 서고 있고, 그 분은 이 곳까지 올 여비도 없고 에너지도 없다.

내일 아침 조찬을 하기로 했다.

그렇게 찾아오는 사람이 있어서 좋고, 찾아 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서 좋은 곳이 쉼터이다.

가장 힘들 때 마음을 열고 위로 받을 수 있는 곳이 쉼터이다.

노숙인 자활도 좋고, 자립도 좋고, 일자리 창출도 좋고, 저축도 좋지만,

상처 투성이 뿐인 마음을 담아 줄 수 있는 쉼터가 있다면

그곳이 가장 좋은 쉼터이고, 그 쉼터에서는 새로운 희망을 꿈꿀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아침을여는집이 그런 쉼터이길 바란다.

그리고 평지교회가 그런 교회이길 바란다.

그리고 우리 동료들이 그런 활동가이길 바란다.

활동가의 한마디가 있어서 속 얘기 떨어 놓을 수 있어서 좋다.

2010. 7. 28 쉼터근무 중에

교회의 사역은 모든 사역이 중요하다. 그러나 특수사역을 결정하고 이 곳에서 특수사역을 하는 교회들은 사명감이 더 충만해야 한다.

왜냐하면, 공적영역에서의 사회와 가장 최전선에서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개인사적으로도 과거에는 신앙인이었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져서 더 이상 믿음을 가질 여력조차 없는 이들과 날마다 부데 끼는 노숙인사회복지시설의 경우에는 더 그렇다.

그리고 교회에서 운영하는 시설이 국가보조금을 가지고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인 종교행사가 아니라도 기독교 정신이 숨여 있는 가치와 철학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승화시킨다면 당사자에게서 훨씬 좋은 변화들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한국의 현실에서 교회의 사회복지가 특히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은 개인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시설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사회적 기준이요, 보편적인 윤리이다.

그러나 교회는 사회보다 한 발 더 내딛는 활동들을 수반해야 한다. 이것이 선교인으로서의 사명이라고 본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현재 현장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에 현장의 어려움을 국가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제안의 통로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

민간단체에서 정부와 대화를 할 때, 노숙인사회복지를 초창기에 구축하고 역할을 담당했던 한국교회는 이제 개별 시설의 운영에만 관심이 있는 것처럼 비춰지는 이미지의 퇴색에 직면하고 있다.

이미 노숙인사회복지에서 주도적으로 시설들을 운영하고 있는 기독교의 입지적 영향력을 볼 때, 이제 연합하고 소통하는 자세를 보여 주어야 할 것이다. 정부 지원 예산이 적어서 경쟁적인 체계에서 각 교단조차도 서로 치열하게 경쟁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라면, 이를 인정하고 서로 대화하며 상생하면서 그 예산의 적정 규모로 키워나가는 것 역시 교회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이며, 그 사업이 활성화되고, 발전하게 되면 그 성과는 노숙인들과 묵묵히 현장에서 노숙인을 위해 일하는 종사자들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것 또한 교회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본다.

만약 교회 자체적으로 교단별 편차가 있다면, 외부 지원군과 내부 집행군을 갖춘 ‘홈리스지원재단’을 설립하여 정부에서 고민하지 않는 분야인 종사자의 재교육이라든지, 노숙인의

자활과 관련된 한국의 상황에 맞는 토착적 프로그램 개발과 노숙인을 포함한 도시빈곤계층을 포괄하는 주거복지 분야를 아울러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쉼터운영에 대한 적극적인 비전제시 등 다양한 사업지원을 통해 도시빈민사역, 즉 노숙인사회복지사업에 참여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2010년에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선교훈련원’에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노숙인사회복지 종사자들을 위한 재교육을 지원하고자 자청하여 주어서 희망을 가질 수 있었다.

이런 관심이 교회가 사회적으로 필요한 역할을 책임지는 작지만 큰 실천이라고 생각한다. 한국교회의 연합된 이런 재단의 구성은 향후에도 도시서민 안정망을 견인해 내는 미래 지향적인 과제를 수행하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좀 더 크게는 동북아시아를 아우르는 연구와 활동까지 실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것이고, 한국의 사회복지적으로도 이미 광역적 후원모금의 형태로 3년이라는 제한적 사회복지프로그램에 숙려된 부작용을 개선해 낼 수 있는 지역 및 사안별 자선기금(charity)과 지원이라는 ‘소규모 기금운용’으로 사회복지사업의 새로운 재분배 모델을 사회적으로 견인할 구 있는 토대라 마련되기를 희망한다.

#### 4) 노숙인의 개별적 사례를 통한 한국교회의 노숙인복지 참여와 개선과제

##### (1) 거리노숙인과 관계(인연)맺기

###### 〈 사례 4-야간거리상담 〉

###### 거리상담 이 철(가명) 활동가

을지로와 시청을 연결하는 지하통로 계단에 가면 외로이 앉아 있는 영철(가명)씨를 볼 수 있다. 그 분은 인사를 건네도, 생강차를 권해도 항상 아무말없이 무뎠는지 뺨길게 핏물이 든 발에 휴지를 붙이는 데에만 열중할 뿐 우리를 받아 줄 준비가 되지 않아 보였다. 이렇게 4달이 지났을까? 어느 때처럼 인사하고 다가서려는데, 작지만 분명하게 ‘수고하세요’ 라며 인사하는 영철씨의 모습에 적잖이 놀랐다. 그리고 영철씨는 왜 그동안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는지 얘기해주셨다.

정읍에서 2남 1녀 중 둘째로 태어난 영철씨는 12살 때 아버지가 중풍으로 쓰러져 돌아가시게 되어 초등학교 졸업하고 어머니와 생활전선에 뛰어들었다. 남의 발 소작하고, 소 키우는 일을

하면서 어려서부터 일을 해서 그런지 키가 160이 안되지만 그래도 행복했다고 한다. 집안의 대를보였던 대학생이던 형이 성공하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당시의 고생을 담담히 받아들였다. 하지만 형이 갑작스런 사고로 죽고, 여동생은 남자때문에 집을 나가고, 어머니마저 형의 사망으로 충격을 받아 돌아가시고 영철씨에게 남은 건 아무 것도 없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술을 마시고, 도박을 하며 인생을 탕진하다가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진 몸과 마음으로 노숙생활을 시작하였고, 철저하게 마음의 벽을 쌓았다.

“그동안 사람들에게 많이도 당했지. 그러다보니 이제는 나한테 말 걸어주는 사람들이 두려워. 이런 내게 친절하게 대해 주는 사람은 다 목적이 있거든. 처음에는 밥도 사주고 돈도 주고 하다가도 인감증명만 받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 사라지거든. 내게 관심을 주면 그게 다 목적이 있더라구. 그런데 자네는 목적이 없는 것 같아서.”

영철씨처럼 거리에 계신 분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은 아닐까 싶다. 만약 영철씨를 보면서, 기다리지 않고 그냥 지나쳐버렸다면, 우리는 서로에게 아무런 존재가 아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인연맺기를 통해 나는 영철씨에게, 또 영철씨는 나에게 서로 의미있는 존재가 되어감을 느낀다. 노숙과 함께 막혀버린 인연들, 밝아오는 2010년 새해에도 영철씨처럼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거리에 계신 분들과의 인연맺기를 계속할 것이다.

## (2) 알콜의존증의 사례

### 〈 사례 5 〉

오늘을 행복하게 여길 수 있기에 내일의 꿈도 희망입니다.

(사) 나눔과미래 나눔마을주민

이병수(가명)

퇴근길 매서운 한파의 찬바람을 온몸으로 느끼면서 자전거 페달을 열심히 밟아 집 앞에 다다릅니다. 자전거를 한 칸에 세워놓고 계단 하나를 내려가면 B04호 앞에서 열쇠를 찾아 손잡이를 돌리면 ‘찰칵’ 하는 청아한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고 따듯한 온기와 함께 편안함이 전해져옵니다.

작은 지하 원룸이지만 저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공간이자 안식처입니다. 불과 1년 6개월 전만 해도 가진 돈 한 푼 없이 삶의 의지조차 잃어버린 채 세상이 무서워 벌벌 떨며 움츠리며

살아왔습니다. 그런 제가 안정된 직장에서 즐겁게 일할 수 있게 되고, 퇴근 후에는 이렇듯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 생기다니... 그저 모든 것이 꿈같고 행복할 뿐입니다.

누군가가 교도소까지 다녀온 네가, 알콜의존증으로 치료소까지 다녀올 정도로 비참하게 살던 네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었냐고 물어본다면, 감히 '자신을 용서하고 사랑하게 될 줄 알고나서부터' 라고 자신있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제 삶은 쓰레기같은 생활 그 자체였습니다.

20대의 저는 평범한 가정에서 화초처럼 편안하게 회사만 다니던 직장인이었습니다. 결혼 후 성급하게 벌인 사업이 실패한 뒤 제 삶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억 원의 빚을 갚을 길이 없어 가족과 친구들에게 알리지도 못한 채 집을 나와 막노동을 해서라도 재기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중국집 배달부터 닥치는 대로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루 열 몇시간씩 고박 일을 해도 현실은 절망적이었고 과거에 대한 집착은 자신을 더욱 힘들게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불 속에서 부자가 되는 상상을 하며 행복을 느끼는 폐인이 되어가고 급기야 무전취식으로 교도소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교도소에서 끼니걱정없이 지낼 수 있게 되자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지난 날이 견딜 수 없이 부끄러워졌고 '새롭게 살아보자' 고 결심하면서 책도 읽고 운동도 열심히 하면서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며 교도소 생활을 하였습니다. 꿈을 가지고 출소한 뒤 천주교교정사목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쉼터에서 숙식을 하며 봉어빵장사를 시작하였고 재활하겠노라, 결심하던 저였지만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여전히 과거를 청산하지 못한 채 나 자신을 학대하며 술에 의지해 생활하였고,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술 한 잔에 없애기 일쑤였습니다. 고쳐보려고 발버둥쳤지만 단 며칠 뿐, 술 한 잔하고 '아차' 하며 눈을 떠보면 지갑은 텅 빈 채 여관방에 누워있는 나를 볼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 자신이 너무나 혐오스럽고 미웠습니다.

벗어나고 싶는데 통로가 보이지 않는, 그런 처절한 마음이었습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다는 절망에 떨고 있다가 주변 친구의 도움으로 자발적 알콜치료소에 가게되었고,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많은 동료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저는 '있는 그대로의 나' 를 인정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고 삶을 살아가는 가치가 '돈' 이 아닌 '내가 딛고 가야하는 길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그 삶을 사랑하게 되는 것' 이라는 정말 소중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치료소에서 얻은 소중한 교훈을 가슴에 안고, 저는 다시 쉼터에 돌아오게 되었고 군밤과 군고구마 장사를 하면서 다시 자활을 시도하였습니다.

이후 저의 삶은 감사 그 자체였습니다. 장사하는 것도 너무 즐거웠고, 열심히 일하고 편하게 쉴 수 있는 삶이 행복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후 여러 분들의 도움으로 지금의 직장에서 건물관리자로 일하게 되었고 아주 적은 보증금과 월세로 '나눔마을' 이라는 원룸에 입주하게 되면서 저는 더욱 더 안정적으로 직장생활을 하면서 저축도 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불과 1년 반 사이에 제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주변 분들의 도움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 삶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과거만을 그리워했다면 제게 주어진 작은 기적들이

이렇게 제게 기쁨을 주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지는 못 했을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저는 행복합니다. 많지는 않지만 꾸준히 저축도 하고, 못한 자식 때문에 맘고생 심하셨을 아버님께 조금이나마 용돈도 드리고, 그동안 연락 안했던 친구들에게 전화도 하면서 과거의 인연들과 다시 관계를 회복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밑바닥 생활을 겪으면서 지금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 삶인지 잘 알기에, 허황된 욕심을 부리는 것이 아닌 오늘 내게 주어진 삶에 충실하면서 행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겐 큰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을 영원히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계속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이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내일도 행복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 (3) 주거복지·매입임대주택의 사례

#### < 사례 6 >

#### 빵 한 조각

나눔마을 주민 김동민(가명)

2005년 말 겨울이 오는 길목에서 사랑하는 가족과 이별하고 나는 거리를 헤매면서 빵 한 조각 사먹지 못하는 알거지가 되어서 더 물리실래야 물리설 수 없는 벼랑 끝에 서 있었어요.

내 인생아 하면서 세상을 등지려고 몇 번이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러나 운명인지 숙명인지 “다시서기” 라는 쉼터를 찾게 되어 불행 중 다행으로 내 인생은 다시 시작 되었어요. 그래서 2006년 4월부터 ‘영등포에 있는 복지관’ 생활을 하면서 새로운 나의 인생은 시작되었어요.

1년은 공공근로하면서 만신창이가 된 몸을 회복했어요. 2007년부터는 건설현장에서 “삶”을 바꿔야겠다는 일념으로 남보다 열배, 백배, 아니 천배는 노력하면서 이를 악물고 새로 펼쳐지는 나의 다시서기 10년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노동일이 생전 처음이라 아무것도 모르는 지하철 건설현장에서 모르는 것은 물어가면서 반생이와 파이프의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피나는 노력 끝에 지금은 못하는 일이 없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언제나 일등으로 출근해서 하루를 준비하고 이제까지 하루도 빠짐없는 만근입니다.

격분에 열심히 일해서 저축한 돈으로 2008년 7월 복지관을 떠나 “아침을여는집”에서 마련해 준 서림동 집에서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한가지 아무리 건설현장에서 힘이 들어도 하나님이 하는 일을 따라할 뿐이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살았어요. 너무나 힘든 나날이었지만, 지금은 너무너무 행복해요. 하나님께 감사해요. 참, 우리 딸 11월 8일 시집갔어요. 하나님이 열심히 산다고 복주었나봐요. 딸 시집가는 날은 정말 행복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빵 한조각 먹지 못했던 날을 돌아보면서 새로 계획한 10년 인생을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갑니다.

우선 계획은 국민임대주택으로 들어간다는 목표를 두고 남다른 노력으로 하루하루를 알차게 살고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이라도 마음먹기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나는 언제나 “처음처럼” 변함없는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제 뜻이 이루어지도록 다같이 기도해 주세요.

반드시 승리하는 하루하루를 분타는 마음으로 살아서 10년 나의 인생 목표가 달성되는 2015년에는 사랑하는 여러분과 “빵 한조각” 이 아닌 10m 높이의 케이크파티를 할 것을 굳게 약속합니다.

추운 겨울이 왔습니다. 건강 조심하세요.

그럼 내일도 일등으로 출근해야 되거든요.

감사합니다.

2008년 11월

### (3) 의료서비스 사례

#### 〈 사례 7 〉

아름다운 행려 병동, “희망의 끈을 놓지 마세요”

사단법인 나눔과미래 사무국장

오범석 전도사

2009년 10월 24일 토요일 오후 3시 30분 기아와 SK의 '2009년 한국시리즈 7차전'이 중계되고 있는 시간, SK가 3점을 내고 있는 그 시간에 갑자기 핸드폰에서는 영국팝 그룹 McFly의 "All About You"가 흘러나온다.

"이대쪽(가명) 어른신이 선생님을 뵙고 싶어하세요. 지금 빨리 병원으로 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런 내용의 전화였다.

이대쪽 어르신은 쉼터에서 생활하시던 어르신으로 벌써 한 달전에 복막염으로 \*\*시립병원 응급실에 입원을 하신 분이다. 입원하시던 날, "조금난 늦었으면 위험하실뻔 했어요" 하고 말씀하시던 외과 과장님의 소리가 다시 귀전에 맴돈다. 기억해 보니 그 날도 토요일 오후 이 시간쯤이었다.

혈래벌덕 옷가지를 주섬주섬 입고, 쉼터를 나와 병원으로 차를 몰고 달려갔다. 중간에 평상시 어르신을 잘 돌보아주시던 '노숙인매입임대주택'으로 독립하신 정선생님에게 연락하여 함께 병원으로 향했다.

병원에 도착하여 병실로 갔더니 이미 중환자실로 가셨단다. 어르신께서 한 달여 남짓 사용하시던 그 침대에는 이미 다른 노숙인 환자가 침대를 차지하고 계셨다.

그렇게 중환자실로 이동 후, 어르신과의 면담을 신청하기 위해 간호사를 찾았다.

간호사가 면회시간은 아니지만, 어르신께서 급하게 찾으신 것을 알고 나에게 전화를 걸어주었던 간호사이기에 은 시간 면담을 허락해 주었다.

그런데 그 순간 쉬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어르신의 상태가 심상치 않은 보고를 받은 담당 외과장님이 들어 오셨다. 당연히 응급조치가 들어가면서 약 1시간 가량을 밖에서 대기해야 했다.

담당 과장님은 자상하신 분이시다. 어르신이 첫 날 입원하셨을 때, 행려환자인 줄 알면서도 친절함은 물론이거니와 자상하게 환자의 상태를 설명해 주신 분으로 내 기억에 남아 있다.

그 후에 성공적인 수술을 하고 난 뒤에 며 칠 지난 뒤, 또 다시 십이지장에 문제가 생겨 어르신의 배에서 피가 하루에 몇 리터씩 쏟아져 나올때는 추석 연휴도 제쳐두고 병원으로 출근하셔서 환자를 살피고 체크하셨던 외과의사였다.

그리고 며칠후 상태가 악화되어 2차 수술을 하시고 오늘 갑자기 수술한 십이지장에서 피가 흘러나오고 맥박은 150까지 치솟자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만사 제쳐놓고 출근하신 것이다.

그렇게 환자를 응급처치하는 의사의 모습을 보면서 감사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의사와의 면담시간. 선생님이 말씀하신다.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재수술을 할 수 밖에는..."

"그러나 어르신의 체력이 워낙 저하되어 있는 상태여서 수술이 위험하지 않을까요?"

라고 조심스럽게 묻는 나의 질문에 선생님의 표정이 난감해 하시는 것 같았다.

의사와 대화를 하는 동안 나름대로 지금의 상태가 정리되는 듯 하였다. '수술한 부위는 이상이 없을 듯한데, 다른 부위에서 또 피가 나오시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으며, 수술은 불가피하다는 것.

그리고 어르신을 만나는 면회시간. 눈에 눈물이 고여 있는 눈망울에는 이미 쏘에 대한 미련을 접은 듯, 삶을 정리하시는 듯한 마음이 전해진다.

"내가 죄가 많아. 오전도사님은 신앙을 넘어 인간적으로 좋아요. 꼭 보고 싶어 연락해 달라고 참 많이 부탁을 했어. 감사해요..."

단어가 연결이 안되고 짧게 끊어지는 표현 속에 인생의 회한과 아쉬움과 미련이 베어 있다.

"오늘 밤을 넘기기 힘들 것 같아. 힘들어. 그래서 전화해 달라고 참 많이 부탁했어. 그래서 그런지 오전도사님도 오시고, 좋으신 의사선생님도 쉬는날 오신 것 같아. 고마워!"

"예, 그런 소리 마세요. 희망의 끈을 놓지 마세요. 지금까지 잘 견디셨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했어. 나 처럼 병상 속에서 고통 받는 이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세상이 좀 더 평화로운 세상이 되게 해 주세요. 가난때문에 고통 받는 이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그렇게 10분여를 대화하고 기도해 드리고 병실을 나왔다.

'오늘밤을 무사히 넘기시면 앞으로 15년은 건강하게 사실 수 있는데, 희망을 놓지 마세요.' 병실을 나오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며 침터로 돌아 왔다.

돌아오는 시간 식당 안에 텔레비전에서는 기아가 9회말 역전 솔로 홈런을 날리는 순간, 기아의 선수들과 사람들이 환호하고 있었다.

가을 밤이 깊어가는 제기동 도심의 밤거리는 쌀쌀한 날씨만큼이나 을씨년스럽다.

그리고 저녁 8시 30분 병원에 전화를 걸어 확인해보니 재수술이 잡혔단다.

벌써 3차수술이고 일주일 사이에 2차수술이 잡힌 것이다.

근무시간에 근무지 이탈하는 것이지만, 밤 11시에 병원에 다시 갈 것이다.

이대쪽 어르신 '부디 희망의 끈을 놓지 마세요. 하나님 어르신이 체력이 약화되었지만 수술을 잘 받으실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는 노숙인 침터의 한쪽 사무실을 지키고 있다.

가을 밤 찬공기가 창문을 통해 들어온다.

2009. 10. 24. 저녁

지금까지의 미담과 사례는 전체 노숙인의 사례 중에서 침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제반서비스 중에 상담과 주거복지를 통한 주택 제공 사례만을 발췌한 것이다.

모두에 노숙인사회복지가 전체 사회복지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상상을 초월할 만큼 작은 규모이지만 그 역할은 매우 크며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고 소개한 바 있다.

그것은 노숙인사회복지사업에서 정부지원 아래 두 가지의 사업이 진행되는데 기반한다.

하나는 서울시에 한정된 사업이기는 하지만 일자리를 구직하기 힘든 노숙인에게 지하철공

구현장이나 서울시의 환경녹지시설 등에 한시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생활인으로서 최소한 저축할 수 있는 임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국토해양부와 LH공사에서 노숙인과 쪽방 및 비닐하우스, 고시원, 여관에 주거목적으로 거주하는 대상자에게 몇 가지 제반조건만 심사에서 통과되면 집을 지원해 주는 사회서비스이다.

명실 공히 노숙인의 주거복지서비스가 시행되면서 노숙인의 자활정책은 사실상 출구를 확보하게 되었고, 노숙인들에게도 새로운 재기의 희망이 생기게 되었다.

이 시점에서 한국사회복지에 관심 있는 교회가 감당해야 하는 사명들이 보인다.

먼저 교회에서 개별적인 사회복지 영역을 넘어 공적영역으로의 사회복지에 관심을 갖어야 한다는 것이다. 개별 사회복지라 함은 교회 내에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사회복지뿐만 아니라 정부보조금을 받으며 운영하는 시설까지 포함하고자 한다.

물론 기존의 사회복지사업을 잘 수행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이제 한 층 더 깊이 있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광의적이고 정책적인 사회복지선교가 되어야 한다.

노숙인을 홈리스라는 조금 더 포괄적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복지서비스 종사자의 역할을 재교육하여 전문성과 개방성을 양성시켜 주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그리고 사회복지 영역이 교회에서 중요한 선교적 가치를 갖는 위치를 점유하게 된 것도 주목해야 한다.

이제는 교회의 사회복지에서 좋은 모델을 제시하고, 민간차원에서 활발한 운동을 펼쳐야 할 때가 된 것이다.

교회가 기존의 사회복지 영역의 구태의연한 병폐와 맞서서 시대가 요청하는 소리에 응답하며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할 시기가 되었다는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것은 교회가 한국사회에서 빈곤계층을 위한 다양한 대안 마련과 실천의 경험을 축적하고, 좋은 영향력을 발휘한다고 하더라도 더 겸손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노숙인과 같은 사회복지서비스 대상자로부터 민간단체, 그리고 정부를 향해서도 필요한 역할은 자청하되, 권한은 스스로 양보하고 내려 놓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사회복지 내에서 교회의 영향력이 오히려 부정적인 권력으로 남지 않아야 할 것이다.

이런 경험과 자세는 향후 남북의 통일을 준비하는 것에도 도움이 될 뿐 아니라, 북한주민을 상대하는 선교에도 기초체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미래 통일 한국을 염원하며 북한주민의 빈곤을 극복하는데 한국교회의 역할이 우리 사회에서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경험들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풍요로운 작금의 현실에서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건전한 사회개혁을 위해 도전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위에서 열거한 몇 가지 유형별 사례는 알콜을 의존증과 정신질환 등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우리 주변에 존재할 수 있다는 단적인 예로 받아 들일 수 있다. 특히 노숙인들에게 치료는 꼭 필요한 사회복지서비스의 실천영역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 치료받지 못하는 서울시의 경우 한 곳에 불과하고, 그나마 음주를 하게 되면 바로 다음날 퇴소조치를 당할 만큼 열악한 환경과 부족한 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한국의 실정에 맞는 치료 프로그램이 부족하다. 기독교 영성과 치료가 동반된 프로그램 개발이 현재 노숙인쉼터에서 가장 필요한 서비스이며, 치료가 필요 없는 자활대상 노숙인들에게도 대안적 일자리창출을 위한 작업장과 같은 소규모사업장의 시도가 필요하지만, 현재의 종사자 인력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사업들이다.

인력인력의 문제는 노숙인쉼터의 자력적 모델로도 시도할 수 있는데, 현재 노동부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3영역의 일자리창출사업인 ‘사회적기업’ 및 ‘예비적 사회적기업’으로 지속적인 시도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실무자들의 경영전반에 관련된 재교육도 필요하고 직업상담사로서의 재교육도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교육은 이루어질 수 없으며, 예산이 없어 기대하지도 못하고 있다.

지자체에서는 정치적인 이벤트성 문화사업과 같은 저예산으로 정치적 홍보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대중주의(Populism)에만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책적 흐름을 바꿔내기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노숙인의 질적자활 및 치료라는 서비스만을 가지고도 현장에서 필요한 것을 사회선교적 차원과 사회의 공적영역으로 확대하고 실천해 가는 다변적 접근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물론, 개별 교단과 개별 목회자의 역량으로 할 수 있는 역할도 필요하고 의미 있는 사역일 수 있겠지만, 여전히 국소적이고 제한적이기 때문에 한국교회에서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기적이 있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 본다.

### 3. 나아가며

짧은 경험을 가지고, 한국교회에 오히려 요구하듯이 대안 마련을 촉구한 것처럼 느끼셨다면,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

홍수에 먹을 물이 오히려 없다는 것처럼 역사 이래 가장 풍요롭게 살고 있는 한국의 현실에서 사회 구석진 곳에서 노숙인과 함께 인생을 나누며 살아가는 수많은 목회자와 신앙인들을 곁에서 안타깝게 바라보는 동료의 심정이 앞섰기에 강한 주장을 한 것 같다.

그렇지만 열악하다고 말하는 노숙인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보다 더 힘들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노숙당사자들을 생각하면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다.

가장 큰 아픔은 희망이 실종 됐다는 것인데, 똑같은 사람으로서 희망이 없는 삶을 산다는 것은 그것이 지옥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노숙을 하는 것이 기독교에서 고전적인 악의 의미로 설정되어 온 ‘게으름’으로 인해 생긴 자업자득이 아닌가? 하는 대다수 국민적 편견과 마주하고 있는 노숙인들에게는 이중고의 고통이 있는 것이다. 더 이상 갈 곳이 없고 손내밀 곳이 없는 우리의 이웃인 노숙인들에게 이제 한국교회가 희망을 전해 주기를 기대하는 마음도 컸기에 강한 주장을 했던 것 같다.

사실 단순히 사례소개 정도로 제안을 받았었지만, 무리하게 노숙인사회복지 전반에 걸쳐 문제 중심의 사례만을 소개했던 것이 못내 아쉽음과 죄송함으로 남는다.

사실 노숙인들의 자활과 관련된 따뜻한 성공 사례는 많다. 이런 성공 사례가 희귀한 것이 아니고 보편적인 성공 사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을 한국교회와 우리사회가 가져 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본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누구 한 사람 가치 없는 이가 없다.

나부터라도 우리가 지하도를 지나칠 때, 노숙을 하고 있는 이들을 대면할 때 우리도 모르게 생겨나는 불쾌감은 인지상정일지도 모른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는 조금 다른 시선을 가지고 이해하는 마음으로 노숙인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이 자리매김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그들은 치열한 경쟁사회 속에서 누군가는 도태될 수밖에 없으며, 구조적으로 사회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이웃이자 내 친구이고, 누군가의 아버지였기 때문이다.

이런 사마리아인과 같은 사람들이 교회가 말하는 이웃이라고 여겨진다면, 이제는 그냥 무심코 지나치지 말고 자원봉사로 야간에 상담도 하면서 힘내시라고 손잡아주는 따뜻한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란다. 전국홈리스연대와 함께 하면 이런 무수한 봉사의 기회는 무한히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노숙인들이 정신적인 문제를 치료할 수 있도록 도우며, 사랑에 목말라하는 우리 이웃에게 개인적인 시간을 헌금하고 만남과 나눔의 실천을 하는데 이제 좀 더 익숙해지는 교회가 되기를 희망한다.